



삼양사 화학연구소 윤광중 님 자녀 윤수영 양



하서 시(河西 詩) 두 편

거문고 노래를 듣다(聽琴歌)

청산에 술이 아직 남아 있으니	靑山酒不盡
귀 기울여 거문고 소리를 듣네	傾耳聽鳴琴
술은 늙어 천년의 빛깔이라면	松老千年色
하늘 길다 만리의 마음이로세	天長萬里心
별이랑 은하수는 찬란도 한데	星河稍燦爛
원커니 마시거니 작은잔 큰 잔	杯爵且淋淫
촛불 잡힌 맑은 밤 흥겹다 못해	秉燭酣清夜
싫도록 노닐면서 취한 노래를	留連寓醉吟

소쇄정 운(瀟灑亭韻)

발걸음 끊은 적이 하마 다섯 해	五載遊蹤斷
대숲 밖의 사립문은 의구하구려	依然竹外扉
못 고기는 일찍이 낫 알거니와	池魚曾識面
동산 나무 얼마나 아름 붙었노	園木幾添圍
임학에 주인 없음 아니건마는	林壑無非主
계산에 사람 절로 드물군 그래	溪山人自稀
눈앞에 속된 물건 전혀 없으니	眼前無俗物
심지가 정미한 걸 보여주누나	心地見精微

하서 선생이 읽고 깊이 깨달은 시경 증민 (詩經 烝民)

하서는 ‘벗에게 준 서한(與友人書)이라는 글’
(하서집 번역본18~23쪽)에서 진덕수(眞德秀)가
쓴 독서기(讀書記)에서 시경의 ‘대아 증민 장’을
읽고 깊이 감동받았음을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물러나와 우연히 진서산(眞西山)의 독서기를
열람하여 증민(烝民) 첫째 장의 뜻을 논한 대문
에 이르러는 비로소 하늘과 사람은 하나로 돌아
감과 동시에 실리(實理)란 존재하지 않은 곳이
없음을 깨닫고서 내심 학자가 마땅히 종사할 것
은 저기에 있지 않고 여기에 있다고 생각했었지
요. 그래서 대략 주려(朱呂)의 한천(寒泉)편을
섭렵하고 몽사(蒙士)의 훈에 미치자 ‘시에 흥기
한다’(興於詩)라는 한 가지 말에 깊이 감명된 바
있어 먼저 주자(朱子)의 집전서(集傳序)를 읽으
면서 그옥이 생각한 바 성기(聲氣)는 비록 다시
상고할 수 없을 지라도 성정(性情)이야 고금에
다름이 없는 즉 진실로 그 장구(章句)를 잘 풍영
(諷詠)하고 그 의의를 탐구하여 그 기상을 바로
잡으면 어찌 옛사람이라 해서 미쳐가지 못할까
보냐.”고.

시경 증민 장을 읽어보았더니 오늘을 사는 우
리들에게도 민생을 파악하는 데 깊은 감동을 주
기에 이 노래를 여기에 실는다. (편집자 씀)

증민(烝民)

하늘이 못 백성을 낳으셨으니
모든 것엔 제각각 법칙 있도다
그러기에 백성들의 떳떳한 본성
아름다운 인품을 좋아한다네
하늘이 주나라를 살펴 보시고
잠깐 동안 이 땅으로 내려 오시어
이렇게 맑은 천자 보호하시고
증산보 그 사람을 낳으셨도다

증산보 그 사람의 사람 됨됨은
부드럽고 아름답고 법도가 있네
아름다운 거동에다 고운 용모에
꼼꼼한 마음씨에 조심 성까지
옛날의 가르침을 본받으면서
위의 있는 몸가짐에 정성 다하며
천자의 거룩한 뜻 잘도 받들어
거룩한 그 뜻 밝혀 세상에 펴네

임금님이 증산보에 하명 하셨네
모든 제후들의 모범이 되고
그대의 조상 뜻을 이어받아서
언제나 임금 몸을 보살피 주고
임금의 명령을 받을 때에는
임금의 목이 되고 혀가 되어서
바깥으로 좋은 정치 펼쳐 내어서
온 천하에 두루두루 행하게 하라

엄숙하고 지엄하신 임금 명령을
증산보 그 사람이 도맡아 하네
제후들 나라들의 잘잘못들을
증산보 그 사람은 알고 있었네
현명하고 지혜롭게 처신 하여서
자기 한 몸 무사히 보존을 하고
아침부터 밤늦도록 정성을 다해
애오라지 한 사람을 섬겨 내었네

세상의 사람들이 흔히 말하길
부드러운 것이면 삼키는 거고
딱딱한 것이면 뱉는 거라고
그러나 증산보 그 사람만은
부드러운 것이라고 삼키지 않고
딱딱한 것이라도 뱉지 않네
홀아비 과부라도 잘보지 않고
난폭한 무리라도 두려워 않네

세상의 사람들이 흔히 말하길
덕이란 가볍기가 터럭 같거늘
그것을 드는 사람 드물다 하네
그러나 조심조심 살펴보니까
증산보 그 사람은 들고 있도다
그를 사랑하지만 도울 수 없네
임금님 하는 일에 결함 있으면
증산보 그 사람은 보완을 하네

증산보 길 떠나며 제사 드리네
네 필 수말 건장하고 늙름하구나
함께 가는 부하들 날래게 걸어
행여나 늦을세라 서두는구나
네 필 수말 가지런히 잘들 달리고
여덟 개의 방울 소리 딸랑거리네
임금께서 증산보께 하명하시어
저 동쪽 나라에 성을 쌓게 하셨네

네 필 수말 씩씩하게 잘도 달리고
여덟 개의 방울 소리 찰랑거리네
증산보여 제나라에 가시더라도
하루 빨리 일 마치고 돌아오소서
이 길보가 노래 지어 부르옵나니
산들바람 불어오듯 훈훈합니다
증산보를 길이길이 그리워하며
외로울사 그대 마음 달래 봅니다.

(이기동 교수 번역 인용함)

유교(儒敎)의 전파와 현대 민주주의

서정기(成均館長)

1. 유교(儒敎)의 유럽 전파

송(宋)나라 성리학(性理學)을 집대성한 주자(朱子)가 서기 1200년에 졸(卒)하였는데 1206년에 몽고족을 통합한 철목진(鐵木眞)이 즉위하여 칭기즈칸이라 칭하고 동방과 서방을 정벌하여 거대한 몽고 제국을 건설해서 육상과 해상의 동서교류의 길을 열었다.

그 손자 훌필열(忽必烈)은 즉위하자 북경에 도읍을 정하고 태극서원(太極書院)을 세우며 국호를 원(元)으로 개칭하였으니 주역(周易)의 건원(乾元)에서 취한 것이다. 그리하여 1279년 남송(南宋)을 멸하고 중국을 통일하여 유럽과 아시아 대륙을 휩쓴 하나의 큰 제국(帝國)을 건설하여 유교(儒敎)의 관제(官制)를 채용하고 국자감(國子監)을 설치하여 공자(孔子)의 시호(諡號)를 대성지성문선왕(大成至聖文宣王)으로 높이며 석전(釋奠)을 봉행하며 5경 4서(五經四書)를 교육하였으니 그 세력을 멀리 유럽에까지 뻗었는데 송(宋)나라 문화는 물론 마호멧과 사라센의 문화를 널리 수입하

였다.

특히 서방인과 상인의 내왕이 빈번해짐에 따라 수학, 역학(易學) 등의 과학문화가 유입되었는데 1299년에는 마르코 폴로(Marco polo)가 동방견문록을 출간함에 이르렀으니 이러한 동서문화의 교류를 통하여 유교의 인본주의(人本主義)에 기초한 도덕문화가 점차 유럽에 전파되어 14세기에는 이탈리아에서 르네상스가 일어났으니 신(神)중심의 문화에서 인간중심의 문화로 전환하는 단서를 이루었기 때문에 15세기말부터 네델란드와 영국에서 계몽사상이 일어나 유교의 합리주의를 수용하니 1517년에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였고, 셰익스피어(1564~1616)같은 문호가 나왔으며, 17세기에 프랑스의 인트루첸터와 쿠플레가 「중국의 철인(哲人) 공자」를 출판하고, 또 푸류엑케가 「유교대관(儒敎大觀)」을 저술하였다.

17세기 말에 영국의 로크, 흄 등은 경험론을 인식론 안에 도입하여 인간의 자연상태를 자유의 실존으로 규정하였으니 이는 주자

(朱子)가 격물치지(格物致知)의 방법으로 제시한 즉물궁리(卽物窮理)의 논리라고 할 것이며, 독일의 칸트, 헤겔, 라이프니츠 등은 신(神)이 아닌 인간의 이성(理性)에 의해 의식이 형성된다고 역설하였으니 이는 주자(朱子)가 성의정심(誠意正心)의 방법으로 제시한 거경궁리(居敬窮理)의 논리라고 할 것이고, 프랑스의 몽테스키외, 루소, 볼테르, 케네 등은 인간적 합리적인 자유의 자율(自律)을 제창하였으니 이는 주자(朱子)가 수신제가(修身齊家)와 치국평천하(治國平天下)의 방법으로 제시한 독서궁리(讀書窮理)의 논리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민본사상의 합리주의에 기초한 계몽사상은 1688년 영국의 명예혁명을 추동하여 다음해에 인간 또는 국민의 자유권 및 그 밖의 권리를 선언하고 보장하는 인권선언을 하였으며 이어 같은 해에 의회의 승인 없이 법률의 정지나 면제, 금전의 징수, 상비군의 유지를 할 수 없으며, 의회 내에서의 언론의 자유 및 왕위 계승의 서열과 자격 등을 규정한 권리장전(權利章典)을 제정 공포하여 입헌 정치의 기초를 닦았으며 18세기 초에는 프랑스의 몽테스키외가 「법의 정신」을 지어 입법, 사법, 행정의 3권 분립을 주장하고, 볼테르는 「철학서간」을 지어 종교나 관습, 제도의 주술(呪術)에 묶여 있는 인간을 감성적, 심정적으로 해방시키고, 죽음보다는 삶을, 내세보다는 현세의 문제로 인식의 전환을 주장하는 시민운동을 전개하였으며, 루소는 「사회계약론」을 지어 인간의 자유, 평등, 해방을 주장하였다.

그리하여 유교(儒敎)의 과거(科擧)제도를 도

입하여 문관 고시 제도를 시행한 영국은 1760년부터 산업혁명을 시작하여 자본주의를 발생하였고, 미국은 1776년 7월 4일 독립을 선언하여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와 자유는 하늘이 부여한 것이므로 정부는 인민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고 선언하니 세계적으로 전제 군주제를 폐지하고 민주주의와 자유시장 제도로 전환하였는 바 미국의 독립선언서를 기초한 참고문헌에 <대학(大學)>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한편 프랑스 대혁명(1789~1799)은 절대주의 왕정을 타도하고 공화 체제로 바꾸었으니 자유주의의 원천이 됨으로써 현대 민주주의가 탄생하는 계기가 되었는데 1789년 8월에 프랑스 국민회의에서 인간 및 시민의 권리를 선언하여 인간의 자유와 평등, 소유권과 저항권, 국민주권, 법 앞에서의 평등, 언론의 자유 등을 내세워 새로운 시민사회의 원리와 민주주의 원칙을 제시하였는데 이것을 인권선언이라고 하여 영국의 권리장전, 미국의 독립선언과 더불어 근대 시민정치의 3대 선언이 되었다.

2. 유교(儒敎)와 프랑스 대혁명

경당(敬堂) 김정협(金禎浹) 선각이 엮은 성본대학(聖本大學) <임만수(林萬洙)학자를 비롯하여 7명이 모필(毛筆)로 쓰고, 광주정판사에서 인쇄한 452면으로 단기4291년(서기 1958)에 발행한 것이다.> 그 첫머리에 덕치(德治)를 중심으로 하는 고금동서의 치란(治亂)을 개관(槪觀)한 항목 속에 공부자(孔夫子) 사상의 유럽 전파와 프랑스 대혁명이라는 소

제목의 내용은 유교와 프랑스 대혁명의 관계를 뚜렷이 증언하고 있다. 이제 그 국한문 혼용체의 문장을 현대말로 옮기면 다음과 같다.

“칭기즈칸(成吉思汗)이 유럽을 정복하였지만 몽고 민족 자체의 문화가 없었으므로 유럽에 문화적 영향을 남기지 못하고, 결국 수만 대병이 왕래하는 동안에 공부자(孔夫子)의 사상을 중심으로 한 한민족(漢民族)의 문화를 유럽에 가져다주었고, 유럽의 문화를 한민족에게 가져다주는 역전마(驛傳馬)의 역할을 함에 불과하였다.

공부자의 대도(大道)는 15~16세기부터 유럽에 진출하였으며 선교사, 탐험가, 여행가들의 왕래와 콜럼버스의 아메리카 대륙 발견 등은 동서양 사상문화 교류에 신국면을 전개하였고, 공부자를 중심으로 하는 성학(聖學)의 여러 경전이 속속 서양에서 번역되었으며, 기타 중요한 동양의 고전문화와 서적이 대부분 서양에 소개되었다. 서양에서 공부자를 연구하는 중심지는 프랑스였다. 17세기 말엽에 프랑스 사람 인트루철티와 쿠플레(Couplet 1624~1692) 두 학자는 「중국의 철인(哲人) 공자」란 책을 공저(共著)하였고, 루이 14세 시대(1638~1715)에 역시 프랑스 사람 푸류엑케는 유교대관(儒敎大觀)을 저술하였다. 특히 푸류엑케의 유교대관은 오늘날 일본의 불문학계(佛文學界)와 유학계(儒學界)에서 소중하게 인식하고, 다시 일본어로 번역하였는데 그 인륜도덕(人倫道德)으로 건설한 애경(愛敬)과 효자(孝慈)가 넘치는 가족 제도의 찬미와 인륜도덕과 정치 경제가 혼연일치하는 덕치(德治)에 대한 흠모는 필경 중국을 지상극락으로 믿게 되었으니 엄격한 천주교와 항쟁하면서

공부자를 신격화하려고까지 하였다.

독일의 칸트, 헤겔, 라이프니츠와 프랑스의 몽테스키외, 루소, 볼테르, 케네 등 서구(西歐) 사상계의 선각자를 다수 배출하여 공부자를 많이 연구하였고, 그 대도(大道)를 계몽사상(啓蒙思想), 개명사상(開明思想)이라고 일컬어 철학사상의 근본을 삼았다.

유럽 사상계의 왕자(王者)라는 존칭(尊稱)을 받은 볼테르(Voltaire 1694~1778)는 성학경전(聖學經傳)을 각고 연구하여 심성4단(心性四端)과 인의예지(仁義禮智)를 크게 깨닫고, 마침내 대성인(大聖人) 공부자의 덕치(德治)를 자극히 공경하여 자기의 서실에 공부자의 초상을 모시고, 아침저녁으로 예배하였으며, 마침내 당시에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서구 전역의 도의적 타락과 봉건정치의 잔인 횡포한 모순과 참담한 농노(農奴)의 압박, 무지, 빈곤과 미신 잡교(雜敎)의 만연 등의 일대 암흑시대에 대한 필연적 대혁명을 시작하지 않을 수 없었다.

유럽의 맹자(孟子)라는 존칭(尊稱)을 받게 된 볼테르는 타락한 봉건적 프랑스 사회에 대항하여 ① 철저한 가족제도의 확립, ② 인륜도덕을 중심으로 하는 덕치주의(德治主義) 실시, ③ 농노해방을 중심으로 하는 민본주의(民本主義) 단행, ④ 계급을 초월하고 인간성에 바탕하여 일시동인주의(一視同仁主義)를 실천할 것, ⑤ 수양(修養)과 인격을 중심으로 하는 인재 등용 제도를 시행할 것, ⑥ 관계(官界)와 산업계(產業界)의 기회 균등과 문호 개방주의를 실행할 것, ⑦ 민중은 이식위천(以食爲天)하며 농업은 천하지대본(天下之大本)이니 농본주의(農本主義)를 실시할 것, ⑧ 귀

족독점의 교육제도를 타파하고 만민(萬民)의 기회 균등 제도를 확립할 것, ⑨ 농노(農奴)와 천민(賤民)도 사법상(司法上)의 인권(人權)이 존중되어야 하며, ⑩ 세습적 관료 제도의 타파 등을 절규하였다.

이것이 볼테르가 확립한 소위 합리주의 철학이다. 이 합리주의 철학은 공부자의 윤리덕치(倫理德治) 사상을 가지고 당시 프랑스 사회의 암흑 타락을 구출하려는 근본 정책으로 역설한 것이다. 유럽에서는 이 합리주의란 결정체를 도출한 공부자의 사상 전체를 계몽 사상 혹은 계몽 사상이라고 일컬었다.

이 계몽사상과 합리주의는 18세기 말엽에 유럽 전체를 진동한 프랑스 대혁명의 지도 원리가 되었다. 볼테르가 절규한 10대정강(十大政綱)은 당시의 암울한 프랑스의 봉건사회에 있어서는 모두가 수 천년 내의 대혁명이 아닐 수 없었다. 그리하여 계몽사상과 합리주의에 점차 각성한 대중은 항거, 행렬, 시위(示威), 폭동, 유혈(流血)을 계속하며 민중의 손으로 제왕신권설(帝王神權說)을 창도하는 국왕을 유폐(幽閉)하며 일체 봉건적 구악모순(舊惡矛盾)과 잔인무도한 사회제도를 모조리 타파분쇄하고, 일대 혁명의 폭풍이 일어나서 유럽 전체에 파급하면서 혁명을 완수하였다.”

3. 현대 민주주의와 국제연합(國際聯合)

유교(儒敎)의 민본주의(民本主義)를 도입하여 합리적인 정치 제도를 갖추려는 서구 계몽사상(啓蒙思想)은 영국의 권리장전으로 입헌정치(立憲政治)의 기초를 만들고, 미국의 독립선언으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제도를 세

웠으며, 프랑스 인권선언으로 인간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는 민주주의 공화 정체를 창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현대 민주주의는 쉽게 실현되지 않고 많은 시련을 겪었으니 문명의 이기(利器)를 도덕 세계 건설에 활용하지 않고 개인적 야망을 채우는 데 광분한 부류가 없지 않았기 때문이다. 항해술의 발달은 포르투갈, 스페인, 영국 등이 차례로 식민지를 지배하는 패권주의(霸權主義)로 변질하다가 마침내 독일의 히틀러(Hitler, Adolf 1889~1945)와 이탈리아의 무솔리니(Mussolini, Benito 1883~1945) 그리고 일본의 동조영기(東條英機 1884~1948) 등이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다. 그러나 영국의 처칠(Churchill 1874~1965) 과 프랑스의 드골(De Gaulle 1890~1970), 미국의 트루먼(Truman 1884~1972) 과 중국의 장개석(蔣介石 1887~1975), 소련의 스탈린(Stalin 1879~1953) 등이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고 국제연합 헌장에 의하여 1945년 10월에 국제연합(國際聯合:UN)을 정식으로 창립하여 제2차 세계대전 후, 국제간의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며 국제 우호 관계를 촉진하며, 경제, 사회, 문화, 인도상의 문제에 관한 국제 협력을 촉진하려는 목적을 천명하고 모든 나라에 문호를 개방하였다.

국제연합은 도덕으로 국제 평화를 보장하여 인류의 행복을 도모하고 문명국가(文明國家)를 건설하여 복지낙원(福祉樂園)의 이상세계(理想世界)를 구현하는 유교(儒敎)의 협화만방(協和萬邦) 사상에서 출발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학(大學)의 평천하(平天下)의 논리는 해아

려서 법도에 맞는 균제방정(均齊方正)의 혈구지도(紮矩之道)로 일관하고, 예기(禮記)의 대동세계(大同世界)는 위대한 도덕질서가 확립되면 천하가 공명정대(公明正大)하다고 하였으니 국제연합이 나아갈 길이 여기에 있는 것이다.

오늘날 덕치인정(德治仁政)을 베푸는 왕도정치(王道政治)를 몸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한갓 부국강병(富國強兵)만을 추구하는 패도정치(霸道政治)를 강행하는 나라가 있다면 공자의 인(仁)과 맹자의 성선설(性善說)을 마음으로 통해야 할 것이고, 또한 도덕은 하늘의 이치(理致)이므로 모든 사람이 배워야 되는 교육의 의무가 있거니와 종교는 성현의 사상이므로 사람마다 각각 선택하는 신앙의 자유가 있는 까닭에 종교 간에 대립하고, 다투어 분쟁을 일삼는 것은 덧없는 일임을 깨달아야 한다. 특히 민주주의를 함에 있어서 공(公)과 사(私)를 엄격히 분별하지 않고 오로지 빈(貧)과 부(富)만을 논하는 것은 시비선악(是非善惡)이 뒤섞이고, 선후본말(先後本末)이 뒤바뀌는 어리석음을 면치 못하리니 경계할 일이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UN을 창설한 지 이미 70년이 되었지만 아직도 제국주의의 명령은 소멸하지 않았고, 왕도정치의 서광은 밝지 않으므로 여기에 민족문제연구소장 임헌영 교수의 빅토르 위고의 혁명론을 인용하여 소개한다.

“본격적인 레지스탕스는 1941년 6월 22일 독소전 개전과 함께 전개되어, 런던의 자유프랑스와 국내 레지스탕스가 공동 작전을 펼쳐 나갔다.

이어 1942년 11월 8일 연합군이 북아프리카에 상륙함으로써 승리의 기선을 잡아 1943년 5월 27일 전 레지스탕스 운동이 참여한 ‘전국저항평의회(National Council of the Resistance, Conseil National de la Résistance)’가 결성됐고, 곧이어 1943년 6월 3일 민족해방평의회(The French Committee of National Liberation, Comité français de Libération nationale)가 형성됐다.

독일 항복 후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의 재건은 레지스탕스가 주축이 되었는데, 여기에는 몇 가지 역사적인 교훈이 있다. 레지스탕스란 단순히 독일 나치즘을 배격한 것이 아니라 비인도적인 사상과 독재 체제와 침략주의를 비판하는 정신을 담고 있다. 바로 유럽 휴머니즘을 실현한 것이 레지스탕스이다. 그 다음은 유럽적인 노블리스 오브리지의 구현 정신이다. 민족과 국가의 지도급 인사들이 지녀야 할 가장 초보적인 양심이 민족과 국가를 배신하거나 민주주의를 짓밟아서는 안 된다는 대원칙이 레지스탕스에 의하여 재확인된 셈이다. 세 번째는 전후 유럽 지성사, 언론, 출판, 문학, 예술, 학문 등등은 다 레지스탕스 세대들이 한 세대를 지배하며 주류를 이뤘다는 사실이다.

프랑스의 레지스탕스 투쟁사를 보노라면 우리의 민족 해방 투쟁사와 겹쳐져 실로 감동적이다. 우리의 투쟁사도 찬연했건만 상부조직에 너무나 많은 분파가 있었고 연대가 모자랐다. 항상 뒷사람들이 문제였는데, 지금도 비슷한 것 같다. 그런데 우리는 레지스탕스들은 다 꺾박 당한 채 친일파들이 득세하고 있으니 유럽과는 상대가 안 된다.”

河西의 철학과 復性賦

이기 동(성균관 대학교 교수)

I 머리말

현대인들은 과거 어느 시대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급속도의 발전을 이룬 현대에 살면서 온갖 행복을 구가하고 있다. 교통이 발달하여 지구 곳곳을 이웃 동네를 드나들 듯 드나들게 되었으며, 세계 곳곳에 있는 온갖 진귀한 음식들을 맛볼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고품질의 옷을 입고 호화로운 주택에서 화려하게 살아가고 있다. 또 온갖 상품들이 즐비하게 진열되어 있어 옛날 처럼 일일이 장만하지 않더라도 간단히 손에 넣을 수 있는 참으로 편리한 세상이 되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보면 현대인들이 반드시 과거의 사람들보다 행복하다고는 하기 어렵다. 현대인들이 살기 좋아진 것은 몸의 삶에 국한된다. 현대인들은 몸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 힘쓴 대신, 마음이라는 것을 방치하고 말았다. 그 결과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마음이 황폐해지고 영혼이 고달프게 되었다.

현대인들은 물질적 경쟁에 몰두하느라 마음이 각박해지고 말았다. 옛날의 우리 선인들은 길

을 가다가 남의 집에 들러 하룻밤 묵어 갈 수 있는 여유가 있었지만, 지금 사람들은 그런 여유가 없다. 이런 모습을 우리의 선인들이 본다면 아마도 인간이 아니라고 비난할 지도 모른다.

마음이 각박해진 현대인들은 정신적으로는 옛사람들보다 더 불행한 것으로 보인다.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이 늘어가고 자살율도 차츰 증가한다. 현대인들은 지나친 경쟁과 이익 추구로 인해 인간사이의 따뜻한 마음이 고갈되었다. 법에 저촉되지만 앓는 범위 내에서 이익이 되는 것은 어떤 것이든 하게 되었다. 이처럼 차가워진 마음으로 시행하는 어떤 정책이나 일들이 제대로 될 일이 없다. 오늘날 세계적으로 불어 닥치고 있는 경제 위기도 근본적으로는 이러한 마음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¹⁾

현대인들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 방식은 인간의 마음을 바로잡는 일에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는 옛날 조선시대에 한 점의 욕심도 없이 깨끗이 살았던 한 선비의 삶을 돌아보는 것은 큰 의미가 있으리라 생각된다. 하서 김인후 선생의 삶

1) 生於其心 害於其政 發於其政 害於其事(公孫丑章句上)

은 욕심을 채우는 과정이 삶의 전부처럼 되어버린 오늘날의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들기에 충분하리라 생각된다. 하서 김인후 선생의 삶과 사상은 삶의 올바른 방향을 잃고 욕심을 따라 우왕좌왕하는 오늘날의 사람들에게 삶의 지표를 제공하는 한 기준이 될 것이다.

II 하서의 큰 뜻과 좌절

하서(河西) 김인후(金麟厚) 선생은 조선 중종 대왕 5년에 장성에서 태어나셨다. 선생은 어릴 때부터 총명예지하여 주위에 소문이 자자하였고, 10세 경에는 능히 시를 지을 수 있었는데, 당시에 호남에 관찰사로 와 있던 모재 김안국 선생에게 수학하였다. 22세 때에는 성균 사마시에 합격하여 성균관에 유학하였는데 당시에 퇴계와 동학하였다. 31세 때에 별시 문과 병과에 합격하여 권지승문원부정자(權知承文院副正字)라는 벼슬을 하게 되었다. 그 뒤 34세 때에 홍문관 박사 겸 세자시강원 설서(說書)로 승진되어 당시 세자였던 인종을 시강하게 되었다. 중종은 인종의 교육을 전적으로 선생에게 맡겼는데, 이 때 선생은 인종의 훌륭함을 알았다. 內聖外王. 임금은 원래 聖人이어야 한다. 내적으로 성인이 된 사람이 외적으로 왕이 되어 다른 사람들을 성인이 되도록 유도하는 것이 유학에서 말하는 정치의 원리이다. 유학의 목적은 자기를 완성하고 타인을 완성시켜 세상을 낙원으로 만드는 것이다. 세상을 낙원으로 만드는 것, 이것은 뜻있는 유학자가 꿈꾸는 최고의 이상이다.

특히 한국인은 더욱 그러했다. 한국인은 다른

나라 사람들과 다른 데가 있다. 하느님이 이상 국가를 만들 수 있는 터를 골라 자신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 보낸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한국인의 마음에는 이상 국가를 건설해야 한다는 의지가 있다. 그리고 이상 국가를 건설하지 못할 때는 안타까움을 견디기 어렵다. 이러한 염원은 한국에 성리학이 뿌리내린 목은 이색 선생에게서 바로 시작이 된다. 이상 국가의 건설, 이것이 한국 성리학의 한 산맥을 형성하며 흘러내리고 있었다. 이러한 시도는 정암 조광조 선생에 의해 불이 붙었으나, 안타깝게도 그것은 실패로 돌아갔다. 이를 본 하서는 너무나 안타까웠고 큰 충격을 받았다. 정암은 중종이 이상 국가를 건설할 임금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과감하게 도학 정치를 펼쳤으나 소인들의 농간에 의해 중종에게 사약을 받고 실패로 돌아갔다. 그러므로 당시의 사람들은 정암을 두둔할 수 없었다. 정암을 두둔하는 것은 중종을 문책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서는 감히 정암의 죄 없음과 당시 농간을 부린 심정 등의 죄를 지적하여 임금에게 진술하기도 했다. 그러한 하서가 인종을 만난 것이다. 인종을 만난 하서는 다시 한 번 큰 뜻을 가지게 되었다. 한국인의 마음 저 밑바닥에 도사리고 있는 크나 큰 꿈이 실현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다시 불붙기 시작한 것이다. 이상 국가의 건설, 유학에서 말하는 止於至善이 바로 실현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인종을 만난 하서가 갖게 된 것이다. 천년 만에 한 번 찾아올까 말까한 기회였다. 이 얼마나 신나는 일인가?

선생은 34세 때에 소인들이 날뛰는 세태를 보고 부모의 연로함을 이유로 고향에 돌아가기를 청하여 옥과(玉果)현감이 되었다. 선생 35세 되

던 해에 중종이 승하하고 이듬해 인종이 등극했다. 이 때 선생에게 큰 불안감이 감돌았다. 문정왕후가 그의 아들 명종을 왕위에 앉히기 위해 인종의 독살하리라는 불길한 예감이었다. 그래서 선생에게 맡기고자 한 경연관의 직책을 마다하고 인종의 탕약을 의론하는 데 함께 참여할 것을 간청했다. 그러나 그것이 허락되지 않자 그대로 임지로 돌아오고 말았다. 그러다가 7월에 인종이 갑자기 승하하였다는 소식을 들었다. 하서에게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 했다. 통곡하고 또 통곡했다. 살고 싶지도 않은 정도였다.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가 소생한 뒤에 병을 핑계로 관직을 사직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그 뒤로는 일체 벼슬길에 나가지 않았다.

크나큰 좌절이었다. 너무나 안타까웠다. 하서는 문정왕후에 대한 비난을 무왕의 말로 대신하고 있다.

황탄하고 음탕하며 폭정을 써서
호시탐탐 야욕만 마구 부려라
궁실 사치 의복 사치 극에 달하고
유독 그 계집말만 달게 여겼네 ²⁾

그 계집은 달기였으나 기실은 문정왕후를 빗댄 것이다. 그리고 인종을 생각하면 야속하기도 했다. 문정왕후에게 거스르지 않고 효도를 다해 순종한 결과가 죽음이었다. 하서는 인종의 그러한 모습을 태자 신생을 빗대어 읊었다.

도피할 곳 없다 하여 앉아 죽으니
내 역시 그 공손이 불만이어라
그런데도 붓대를 쥔 우리 성인은
어찌하여 놓아주고 추궁 없었나
한번 인(仁)에 뜻을 두면 악(惡) 없다더니
내 이제야 진실로 그걸 알았네
후세에선 순종(順從)을 허물로 여겨
면키 위해 하늘을 거역하거든
다시금 난신적자 발을 붙이여
그들은 세자더러 불효라 하네
죄상을 도피하고 찬탈 다투며
제 마음 깨끗하다 내세우나니
세자의 속마음을 뉘라서 알리
아득한 저 하늘만을 쳐다볼 따름
십사가 산란하여 풀리질 않아
천년을 두고 나 홀로 방황을 하네 ³⁾

하서의 위의 글은 썸 나라의 태자 신생을 조문하는 글이지만, 실지로는 인종을 조문하는 글이다. 하서는 인종의 죽음을 춘추시대 썸나라 현공의 태자 申生의 죽음과 같은 것으로 본 것이다. 태자 신생은 계모인 麗姬의 농간으로 아버지에게 의심을 받아 어려운 상황에 처해졌다. 그 때 부하가 麗姬를 죽이자고 해도 아버지가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이유로 듣지 않았다. 다른 나라에 망명을 하자는 권유를 받기도 했으나 아버지의 죄를 만방에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따를 수 없다고 하며 자살을 했다. 하서는 인종의 마음 씀

2) 羌荒淫易橫暴兮 縱虎視之耿耿 侈宮室與衣服兮 惟婦言之是甘(筆巖書院刊『河西全集』上 109쪽 孟津賦)

3) 無所逃而待烹兮 吾亦不滿其爲恭 顧聖人之秉筆兮 曷爲縱釋而莫窮 苟志仁則無惡兮 吾至今乃知其信然 後世以廢親爲過兮 徒苟免而違天 復有亂賊之接迹兮 彼將謂子爲非孝 紛連誅而爭纂兮 言予心之皎皎 夫孰察子之中情兮 但視天兮茫茫 思臺臺之不釋兮 獨千載而彷徨(筆巖書院刊『河西全集』上 136쪽 弔申生辭)

씀이를 신생의 마음과 같은 것으로 보았다.

신생의 죽음은 어리석은 것이 아니다. 그것은 진리를 따른 것이다. 신생의 죽음 앞에서 후세의 많은 난신적자들이 부끄럽게 될 것이다. 사람의 삶은 육신이 끝나는 순간 함께 끝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진리대로 산다면 그 삶은 영원한 것이다. 영원의 기준에서 순간을 판단해야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仁의 마음으로 사는 것이다. 신생의 죽음은 육신의 죽음일 뿐이지 삶 그 자체의 소멸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자는 신생을 꾸짖지 않았다. 이를 알게 된 하서는 죽음을 택한 인종의 어진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다. 그렇다 하더라도 슬픔은 가시지 않는다. 심사가 산란하여 방황할 수밖에 없다. 이 방황은 육신이 끝나도 천년이나 계속될 것 같다. 그만큼 인종의 죽음은 하서에게 애절한 것이었다. 인종과 함께 꾸었던 이상 국가 건설의 꿈을 접어야 했다. 꿈을 접고 사는 신세는 새장에 갇힌 새의 신세와 같다.

한번은 외삼촌 댁에서 기르던 자로새가 날아서 새집을 나간 일이 있자, 그 새가 다시 멀리 날아갈까 염려되어 날개와 깃을 잘라 버렸는데 그것을 본 하서는 마치 자신의 신세처럼 여겨졌다. 좀 긴 시이지만 하서의 신세가 잘 표현된 것이어서 읽어보기로 하자.

강해에서 출생한 새가 있으니
날개가 보통 새와 다르군 그래
위에선 현학(玄鶴)과 무리가 되고
아래선 황곡(黃鵠)의 뒤를 따르네
깨끗한 델 가려서 쪼고 마시며
물가를 의지하여 깃드는 구려
목욕 뒤엔 햇볕에 깃을 다듬고

멀리 서서 몸가짐을 바로 고치네
마을 사람 돈 벌이를 좋아하기로
잡아다 높은 집에 팔아 넘기니
깃과 털은 반이나 켜여 빠지고
먹이는 주린 배를 채우지 못해
진흙속의 개미 벌레 주어먹으니
그 따위가 본성에 맞을 리 있나
이따금 하늘 향해 울어대며는
옛 짝들 소리 듣고 서로 안다네
머리를 쳐들고도 날지 못하니
외로운 얹매임이 가없다마다
술상 옆을 나직이 땀돌아 들어
귀 기울여 풍악 소리 듣기도 하네
풀잎을 입에 물고 춤을 출 때는
자세가 어찌 그리 의젓도 한지
하루아침 억센 날개 돌아났다가
한번 펼쳐 일어나는 회오리바람
기운 펼쳐 넓은 들로 날아만 가니
아이들이 뒤를 쫓아 달음질 하네
얼마를 못가 도로 몰아들이니
또 다시 그물 속의 신세 되어라
깃털을 드문드문 잘라 버리니
가련타 네 간단들 어디로 가리
제 몸을 제 뜻대로 못 갖는 설움
돌아보면 이 어찌 네만이겠나⁴⁾

날개 꺾인 새의 신세가 된 하서는 크나큰 좌절을 맛보고 있어야만 했다. 그럴수록 인종에 대한 그리움은 쌓여만 갔다. 인종과 자신을 견우와 직녀에 빗대어 보기도 했다. 그러나 견우와 직녀는 일 년에 한 번씩 만날 기약이나 있지만 인종과 자신은 영영 만날 수도 없다. 그러한 심경을 하서는 칠석부에서 읊고 있다.

향기로운 꽃은 시들기가 아주 쉬운 것
 이별은 왜 이다지도 빠르단 말고
 서글피 서로 대해 한숨 지우니
 서쪽으로 가는 저 달이 원망스러워
 하늘 님이 날개 치며 새벽을 재촉하니
 오래도록 머무르자 해도 머물 수 없는 신세
 긴 생각에 잠기어라 실의의 모습
 마음이 사뭇 닳아 닳을 잃었네
 맑은 바람 다달아 이별을 차마하리
 쏘아지는 눈물만이 쌍 갈래로 떨어지네
 구름은 아득아득 바다 빛이 떠오르고
 두 눈은 가물가물 갈 길은 멀고 멀어.
 떠나간 어진 입을 그리노라니
 날 갈수록 내 설음이 불어나누나
 직너는 게을러서 배도 못 짜고
 전우는 홀로 하수에서 물을 마시네
 한 해가 가고 나면 기약 있으니
 굳은 맹세 간직하며 변할 줄 몰라
 하느님의 후하신 은덕을 입어
 날이 가고 달이 가고 철도 바뀌라
 더더구나 천지는 장구하거니
 회합의 때야 말로 얼마나 많나
 멀리 떠난 수졸의 아내라던가

이역에 귀양 사는 신하들 보면
 남편이 못 돌아와 슬퍼만 하고
 영영 떠난 임 그리워 눈물을 짓네
 죽어도 한이 남아 소리 삼키니
 어찌 이와 같다고야 할 수 있으리 ⁵⁾

억울한 심경을 달래느라 하서는 곧잘 술을 마
 션다. 이러한 심경을 하서는 취옹에 빗대어 읊
 기도 했다.

얼음과 숯불이 가슴속에 엉켜 있으니
 이야 말로 술 아니면 어찌 견디리 ⁶⁾

크나큰 뜻이 꺾이어버린 하서는 술 마시는 일
 이 많았다. 특히 매년 인종의 기일이 가까워지
 면 글을 폐하고 객도 만나지 않은 채 날을 보내
 며 한 번도 문밖을 걸어 나간 적이 없었다. 기일
 에 이르러서는 술을 가지고 집 남쪽의 난산(卵
 山) 속에 들어가 한 잔 마시고 한 번 곡하고 슬
 피 부르짖으며 밤을 지새고 내려왔다. 하서는
 종신토록 이와 같이 하여 한 번도 폐하지 않았
 다. 하서는 그러한 심경을 有所思란 제목의 시
 로 읊었다.

4) 有鳥出江海 雲翼殊凡姿 上與玄鶴群 下有黃鵠隨 飲啄取潔淨 棲息依清涯 浴罷刷晴景 迥立整容儀 村人喜
 賈貨 掩致高軒墀 羽毛半摧落 稻梁未充飢 泥間拾虫蠅 有時叫青宵 舊侶聲相知 仰首不得飛 戚戚憫孤羈
 低徊尊俎側 傾耳彈朱絲 銜草或戲舞 舉止何委蛇 一朝勁翮生 扇搖驚颺吹 忽奮度曠野 追隨走童兒 居然委驅逼
 復爲塵網縻 剪翎不使去 憐哉何所之 有身未自任 顧爾非獨癡(筆巖書院 刊 河西全集 上 188쪽 外舅家有鷓鴣
 飛出慮其復遠舉剪翎羽見而感之有作)

5) 愁芳華之易歇, 恨別離之多時, 悵相對而歎歔, 怨望舒之西馳, 天鷄搏翼而催晨, 羌不可乎久稽, 怊惝恍以永懷,
 心嬋媛而魂迷, 臨清風兮不忍別, 渙雙涕兮橫迸, 雲蒼茫兮海色騰, 目眇眇兮路脩曼, 思靈脩兮去莫留,
 日復日兮增余悲, 金梭倦而莫御, 牛自飲兮河之湄, 還三百之有期, 保貞盟而不渝, 荷皇天之厚德, 尙時月之屢徂,
 況天長而地久, 亦會合之多辰, 彼遠戍之思婦, 及絕域之放臣, 哀良人之不返, 泣君王之永絕, 死遺恨而吞聲,
 夫豈此乎一列(筆巖書院 刊 『河西全集』 上 42쪽 七夕賦)

6) 鬱冰炭之交腸兮 諒非酒而何堪(筆巖書院 刊 『河西全集』 上 105쪽 醉翁亭賦)

한창 때 해로할 이 잃어버리고
눈 어둡고 이 빠지고 머리 희었네.
물려 사니 봄 가을 몇 번이더냐.
오늘에도 오히려 죽지 못했소.⁷⁾

하서의 한 평생은 슬픔과 좌절의 한평생이었다. 그 뒤로 한 번도 벼슬길에 나간 적이 없었고, 서울에 올라간 적도 없었다. 그렇다고 해서 하서의 한평생이 좌절로 인한 것만은 아니었다. 크나큰 승화가 있었다. 그렇지 않았다면 하서는 인정에 매몰된 한 인물일 뿐 큰 인물이라고 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III 하서의 수양 철학과 復性賦

세상을 구제하고 이상 국가를 건설하려던 설레던 꿈을 상실한 하서는 돌아왔다. 세상 구제의 방향을 원주를 향하는 원심력이라면 그 반대 방향은 구심을 향한 구심력이다. 작용이 크면 반작용도 크다. 강하게 떨어진 공은 강하게 튀어 오른다. 마찬가지로 治人の 방향으로 강하게 뻗어나던 하서의 마음은 그만큼 더 修己로 집중되었다. 大乘에서 小乘으로의 회귀인 셈이다.

하서는 어떤 부름에도 응하지 않고, 오직 수양공부에 매달렸다. 修己와 治人 중에서 治인이 더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이다. 修己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불리 治人に 힘을 쓰면 다스림

은 거의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만다. 반면 修己를 완성하기만 하면 治人は 따로 하지 않아도 저절로 된다. 자로가 군자에 대해 물었을 때 공자는 경건한 마음으로 자기를 닦는 것(修己以敬)이라고 대답했다. 治人에 대해서는 언급하지도 않았던 것이다. 그것뿐이냐는 반문을 받았을 때, 자기를 닦아 남을 편안케 하는 것(修己以安人), 자기를 닦아 백성을 편안케 하는 것(修己以安百姓)이라고 덧붙였을 뿐이다.

정치로 나아갔다가 좌절을 하고 돌아와 수양에 집중하는 하서는 정치를 포기한 소극적인 사람이 된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정치를 제대로 하는 바른 길로 들어선 것이다.

하서는 말한다.

진실로 오직 효도하는 것이 바로 정치인 것을⁸⁾
가정을 아니 나도 교화 이룬다.⁹⁾

유학은 원래 수양을 중시하는 학문이다. 수기만 되면 치인은 저절로 되는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이론은 성리학에 이르러 더욱 철저해졌다. 성리학자 하서는 이제 철저한 성리학의 이론에 따라 철저한 수양에 몰두하게 되었다. 철저한 수양에 몰두하게 된 하서의 눈에 들어온 글이 있었다. 바로 당나라 학자 李翱의 復性書이었다. 복성서는 인간의 본성을 회복하여 성인이 되는 데 목적을 둔 글이었다. 이고는 당나라 말기에 극심해진 불교의 폐단을 극복하기 위해 복성서를 지었다. 이고는 불교의 폐단을 두고 불

7) 盛年失偕老 目昏衰髮齒 民幾春秋至今有未死(筆巖書院刊『河西全集』上370쪽 有所思)

8) 信惟孝之爲政(筆巖書院刊『河西全集』上56쪽 孝賦次梁兄彥鎮韻)

9) 不出家而成教(筆巖書院刊『河西全集』上56쪽 孝賦次梁兄彥鎮韻)

수 없었지만, 그러나 이고에게는 불교가 매력이 넘치는 가르침이기도 했다. 불교의 가르침은 번뇌를 끊고 불성을 회복하여 성불하는 것이었다. 성불하는 것보다 마음 편한 것이 없었다. 이고는 불교의 폐단과 불교의 매력 사이에서 고민했다. 이런 고민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불교의 매력보다 더 많은 매력을 유학에서 찾아내는 것이었다. 유학의 매력을 찾기만 하면 굳이 불교를 고집할 필요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유학의 경전을 연구한 끝에 이고는 유학의 경전을 통해서 성불하는 것 이상으로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었다. 그 내용을 자세히 기록한 글이 바로 복성서였다.

복성서의 내용은 인간의 본성은 하늘의 마음이므로 본성을 회복하기만 하면 하늘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다. 하늘마음으로 돌아가 하늘마음으로 사는 것이 성인이다. 성인은 생사를 극복한 사람이다. 이고의 복성서에 의하면, 성을 회복하여 생사를 초월한 성인이 되는 것은 불성을 회복하여 생사를 극복한 부처가 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복성서를 쓴 이고의 사상은 주돈이, 장재, 정이를 거쳐 주자에 이르러 완성되었는데, 그것이 주자학이다. 주자학은 성리학, 송학,리학, 정주학, 신유학 등으로도 불린다. 이를 보면 주자학의 수양 철학은 이고의 복성서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주자는 이고의 복성서가 불교의 체계와 너무 닮았다고 비판한 일이 있었다. 그 때문에 훗날 주자학자들은 주자학의 체계를 세울 때에 이고를 빼고 주돈이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그 때문에 주자학의 체계를 대변하는 교과서인 『성리대전』, 『근사록』 등이 모두 주돈이의 태극도와 태극도설로부터 시작한다. 주자

학이 난해하게 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복성서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정리했다면 주자학이 불교의 해탈론과 같은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었을 것이다.

개인적 수양에 집중하고 있었던 하서의 눈에 들어온 이고의 복성서는 매우 요긴한 것이었다. 하서에게는 주자의 비판 따위가 안중에도 없었다. 수양을 통해 본성을 회복하고 성인이 되기만 하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하서는 복성서를 세밀하게 읽었기 때문에 주자학 전체의 성격을 너무나 잘 이해할 수 있었다. 때문에 하서는 복성서의 가치를 알고, 復性賦를 지었다.

온갖가지 종류들이 태어날 적에
하느님이 명해준 본성 받으니
천지의 마음과 다섯 윤리요
음양과 오행이 잘도 어울려
진실로 선(善)뿐이요 썩임 없어서
혼연히 진리 마음 녹아 있도다
그렇지만 막힘과 편벽함 있어
기질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은 빼어난 기운 받아 신령하지만
그래도 지(智)와 우(愚)의 차가 있는 것
누를 벗고 가림이 열린다면
성인되는 그 길을 오르고 말고
요순처럼 본성대론 못한다지만
湯武처럼 돌아옴엔 남음이 있네
배우고 묻고 생각하며 분별을 하여
날로 끊임없으면 復初가 되네
마음을 굳게 잡고 본성 지니면
나약함은 강해지고 어리석음 밝아져
어찌 분수 밖의 일에 애를 쓸 손가
아는 것을 미루어 행하면 되지

----- <중략> -----

홀로 깊이 우주를 생각함이어
밝게 배워 정성스레 살기를 원해
거듭 말하노니
물은 극히 맑은데 진흙이 흐리게 하고
성은 극히 선한데 물욕이 막아버리네
흐린 것이 없어지면 맑은 것이 나오고
막혔던 게 풀려지면 착함 회복 되나니
부지런히 부지런히 힘을 다 써서
처음의 모습으로 돌아와야지¹⁰⁾

하서는 순수하고 철저했다. 사람들은 이고의 복성서가 불교적 색채가 있다고 하더라도 하서에게는 그런 것이 문제되지 않았다. 본성을 회복하여 진리를 얻기만 하면 되었다.

수양에 몰두한 하서는 큰 경지를 얻었다. 본성을 회복하는 것은 하늘마음을 회복하는 것이었다. 하늘마음은 전지전능한 마음이다. 본성을 회복한 하서는 전지전능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 이고와 동시대에 한유(韓愈)라는 인물이 있었다. 한유는 불교의 배척에 전력투구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한유를 맹자에 견주는 사람들이 많았다. 맹자는 양주와 목적을 배격하기 위해 전력투구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유의 사상은 맹자의 사상과 전혀 다른 것이었다. 한유의 사상은 오히려 순자와 같은 것이었다. 하서는 이

를 놓치지 않았다. 하서는 한유의 한계를 예리하게 지적했다. 주자학자 중에 한유를 비판하는 사람은 흔치 않은데, 하서는 그렇지 않았다.

당나라에 이르러 한유가 본 것이 있어
적(籍)과 식(湜)에게 가르쳤었네
이고가 저술한 세 편을 보면
더러는 체득한 바 있는 듯하네
순과 자를 평론하긴 어렵겠지만
그렇지만 삼품(三品)이란 그릇된 주장
설명의 엉성함을 알고도 남네¹¹⁾

하서는 성삼품설을 주창한 한유의 주장이 얼마나 잘못된 이론인지를 알았다. 그리고 이고의 복성서 세 편을 읽고는 이고가 체득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성을 회복하여 성인의 경지에 오른 하서는 더 이상 슬픔에 빠져 있지 않았다. 본성을 회복하고 나면 본성대로 살기만 하면 되었다. 본성을 회복한 사람이 본성대로 사는 모습이 의리이다. 하서는 의리를 실천하는 화신으로 등장을 한다.

IV 의리 실천의 경지

벼슬길에 나가지 않는 것이 편협한 고집에서

10) 惟萬彙之稟生兮 受天命之正性 具乾順與五常兮 寔二五之所併 諒純善而無雜兮 渾至理之冲融 然通塞而正偏兮 由氣質之不同 人得秀而最靈兮 尙智愚之有差 苟脫累而開蔽兮 斯聖途之可階 雖非堯舜之性之兮 湯武反而有餘 在學問而思辨兮 日乾乾而復初 要操心而存誠兮 可柔強而愚明 豈強事於分外兮 推所知而乃行
--<중략>--獨長思於宇宙兮 願從事於明誠 重曰 水之至清 塵泥汨兮 性之至善 物欲窒兮 汨者既去 清者出兮 窒者既通 善者復兮 盍亦孜孜 反初復兮(筆巖書院 刊 河西全集 上 96쪽 復性賦)

11) 至唐韓之有見兮 屢指教於籍湜 韜所著之三篇兮 或一端之有得 嗟寡聞之靡及兮 奈醇疵之難評 然三品之已誤兮 占所述之不精(筆巖書院 刊 河西全集 上 96쪽 復性賦)

기인하는 웅졸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벼슬 길에 나가고 싶지만 고집 때문에 참고 있는 것 이어서도 안 된다. 거기에 전혀 구애되지 않는 자유자재한 상태일 때 비로소 의미가 있다. 우 주의 입장에서 현실을 바라보는 차원이 되면 구 차하게 나아가지는 않는다. 세속에서의 부귀영 화를 뜬 구름처럼 바라볼 수 있는 경지이기 때 문이다. 하서는 그러한 경지를 이루었다.

공자가 제자들에게 소원을 말해보라고 했을 때, 자로는 삼년 안에 나라를 안정시키겠다고 했고, 염유는 사방 60 리나 70 리, 아니면 50리 나 60리 정도를 삼년 안에 안정시키겠다고 했 으며, 공서화는 종묘의 제사를 돕는 일이나 제 후들이 회동할 때 돕는 정도의 일을 해내겠다고 말했으나, 증석은 아주 달랐다. 증석은 몇몇 사 람들과 어울려 기수라는 강에서 목욕을 하고 무 우라는 곳에 가서 바람을 쐬 뒤에 노래를 읊조 리며 돌아오겠다고 말했다. 이에 공자는 증석이 제일 근사하다고 칭찬을 했다. 당시는 춘추시대 로 세상이 극도로 혼란한 시대이었다. 그런데도 공자가 증석을 칭찬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바로 세상에 초연해 있는 경지를 말한 다. 사람은 근본적으로 하늘과 하나이고, 우주 와 하나이며, 만물과도 하나이다. 이 하나인 본 질을 잊지 않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 세상이 바 로 낙원으로 보인다. 이 세상이 혼란한 것으로 보이는 것은 본질을 잊어버린 사람의 눈으로 보 기 때문이다. 이 세상을 낙원으로 볼 수 있는 사 람은 이 세상의 일에 초연할 수 있다. 서양의 건 유학과 철학자 디오게네스가 찾아온 알렉산더 대왕이 희망이 있으면 들어주겠다고 하자, 햇빛 을 가리지 말아달라고 부탁한 것과도 통한다. 공자는 그래서 내가 어느 날 하루 극기복례하면

천하가 仁의 모습이 된다고도 했다. 그렇다면 공자가 이 세상을 구제하기 위해 돌아다니는 근본 이유는 이 세상을 제대로 보지 못하여 고통 받 고 있는 사람들을 깨우치기 위함이었다.

이것은, 가지고 놀던 인형의 팔이 부러져 울 고 있는 어린아이의 모습을 본 어른이 그 어린 아이를 달래는 방법과도 같은 것이다. 어른의 차원에서 보면 인형의 팔이 부러진 것은 슬픈 일이 아니다. 그러므로 어린아이를 달래는 근본 방법은 인형의 팔이 부러진 것이 슬픈 것이 아 니라는 사실을 깨우치는 것이다. 그러면서 어린 이가 깨닫기 전까지는 방편적으로 인형의 팔을 고쳐주는 것을 택하는 것이다. 증석은 전자에 해당하고, 자로 염유 공서화는 후자에 속하는 사람이었다. 전자에 속하는 사람은 세상일에 초 연할 수 있지만, 후자에 속하는 사람은 그렇지 못하다. 후자에 속하는 사람이 세상일을 다스릴 때는 늘 문제가 생긴다. 그 까닭은 아무리 잘 다 스린다 해도 계속 다른 문제가 생겨나기 때문이 다. 오직 전자에 속하는 사람이 나설 때 비로소 세상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

하서는 전자에 속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것은 끊임없는 수양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다. 하서의 말을 직접 들어보자.

어둠 속에 운행하는 묘한 한 섭리
소리 냄새 하나 없어 아득만 하네
위로는 높고 둥근 곤륜을 뚫고
아래로는 두텁게 쌓여 있는 땅 밑에까지
실지로 만 조화의 원동력이며
진실로 만물의 큰 한 뿌리
예로부터 지금까지 변함없는데
어느 한 물건인들 소외시키리

귀하도다 성인은 본성 다하여
그야말로 넓고 큰 하늘이로세
지묘한 본연을 포함하면서
고요하고 전일한 마음과 하나
이미 한 마음 전일하여 갈림 없어라
진실로 순수하여 둘이 아닌 걸
세상사 어지러이 바뀔지라도
대응하는 방법은 오로지 하나
두루두루 응하여 모두 죽하니
모든 것이 어울려서 낙원이 되네
천하가 제아무리 넓다 하지만
모두가 내 한 몸에 달려있느니¹²⁾

진리를 얻은 사람은 천지와 하나가 되고, 우주와 하나가 되며, 만물과 하나가 된다. 그런 사람에게 세상의 모든 것이 잘 어울려서 낙원이 된다. 그래서 세상사에 초연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사람은 아무렇게나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사람의 삶은 진리의 길로만 간다. 그런 사람의 삶은 물과 같다. 물은 어디에도 얹매어 있지 않지만 아무 방향으로나 흐르지 않는다. 오직 아래로만 흐른다. 그것은 자연의 길이다. 하서의 삶도 그러했다. 하서의 말을 들어보자.

내 자연의 이치를 따르는 것이
바로 내가 마땅히 행할 길이라
기쁨은 비록 차이가 있다 하지만
이(理)는 다 오롯하게 주어졌다오.¹³⁾

하서가 벼슬길에 나아가지 않았던 것은 인종의 죽음 때문에 맺힌 울분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것만이라면 그것은 용졸한 것일 수 있다. 하서가 벼슬길에 나아가지 않았던 것은 진리를 터득하여 초연한 상태에서 택한 자연의 길이었다.

V 의리를 통한 크나큰 실천

진리를 얻어 세상사에 초연해진 사람만이 세상을 제대로 다스릴 수 있다. 그런 사람만이 사람들을 이끌고 갈 방향을 알기 때문이다. 그런데 세상에서 다스리는 사람들은 거의가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 그런 사람들을 깨우치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은 벼슬길에 나아가지 않는 모범을 보이는 것이다. 하서가 벼슬길에 나아가지 않았던 것은 그런 모범을 보이는 것이었다. 그것은 가장 적극적인 방법이었다. 하서는 다음과 같이 읊었다.

하느님의 밝은 명이 빛나 바깥에 없네
부족하지도 않고 남아돌지도 않네
따르지만 할 뿐 억지 부리지 말아야지
처음을 회복하는 길은 실로 내게 달려 있네
어려서는 몸을 잘 잔직하고
자라서는 공리의 습속을 벗어나서
하늘을 거역하는 패덕을 경계하고
인(仁)을 해치는 잔적을 추방해야 하나니¹⁴⁾

12) 妙一理之冥運 泯聲臭以冲漠 通高圓之昆侖 窮厚載之磅礴 實萬化之樞紐 諒品彙之根柢 亘古今而常然 豈一物之不體 貴上聖之盡性 羌浩浩乎其天 涵本然之至妙 渾方寸之靜專 既主一而無適 審純亦而不二 紛事機之萬變 顧酬酌之在是 自汎應而曲當 物各得其所止 彼天下之雖廣 總管攝於吾身(筆巖書院刊 河西全集 上 91쪽 一貫賦)

13) 循吾自然之理 乃吾當行之路 氣有不齊 理則全付(筆巖書院刊 河西全集 上 56쪽 孝賦次梁兄彥鎮韻)

잔적을 추방하는 일은 수양을 통해 하늘의 뜻을 따르는 사람만이 가능하다. 그런데 사람들은 수양을 게을리 하면서 정치 권력을 획득하기 위해 정치에 뛰어드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그것은 이미 성공할 수 없다.

종묘를 존속하고 사직을 보전하며
한 집을 유지하고 한 몸을 지키는 일
진실로 이 도(道)에 어긋난다면
나머지야 뉘 죽히 보고 취하리¹⁵⁾

사람들은 권력욕을 얻기 위해 눈이 멀었다. 진리가 무엇인지, 인생이 무엇인지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권력욕을 실현하기 위해 벼슬 길에 나아가곤 한다. 그러나 그러한 것은 그 자체가 이미 폐해가 심각하다. 그들은 세상을 구제한다는 핑계를 대곤 한다. 그러나 그것이 핑계라는 것은 스스로가 안다. 이러한 자들에게 크나큰 경종을 울리는 역할을 하서는 해내었다.

사람들은 뜬 이름을 귀히 여기어
그로서 다시없는 목표로 삼네
언으면 그야말로 영광이 되고
못 맞히면 욕이라 이르더구만
명예와 이욕에 풍덩 빠져서
다투어 달리는 꼴 치사도 하지¹⁶⁾
모든 것은 근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꽃을 예

쁘게 피우기 위해 꽃을 다듬는 방법만 배운다면 결코 꽃을 예쁘게 다듬을 수 없다. 근본으로 돌아가 뿌리를 가꾸는 법을 배워야 한다. 뿌리가 튼튼할 때 비로소 꽃은 아름다울 수 있다. 꽃을 다듬는 것은 그 다음의 일이다. 하서는 이것을 일러 “본 뿌리가 상하면 가지가 망한다”¹⁷⁾ 고 했다. 세상 사람들이 권력욕을 채우기 위해 정치판에 뛰어드는 것은 그 자체가 잘못이다. 털끝만한 사심도 없는 사람이 나서야 성공할 수 있다. 정치라는 말은 바르게 한다는 말이다. 자신이 바르지 못한 사람은 남을 바르게 할 수 없다. 그러한 사람이 정치 권력을 잡을 수 도 있다. 그리고 권력을 잡는 것을 성공이라고 그들은 말할 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성공이 아니다. 자신도 불행하고 남도 불행하면 나라도 불행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러므로 그러한 사람이 정권을 잡는 것 자체가 실패다. 이를 하서는 경고한다.

털끝만한 사(私)라도 단연 끊어야
걸치레만 힘쓰고 본이 없다면
이야말로 공자의 예운악운(禮云樂云)이 로세
하물며 부귀에 정이 끌리어
뜬 구름에 요행을 바라단 말가.¹⁸⁾

장성에 돌아온 뒤로 단 한 번도 벼슬길에 나서지 않고 수양에 주력했던 하서의 의리 정신은

14) 赫赫明明之無外 非不足而有餘 是曰有順而無彊 誠復初之在余 蒙養固筋骸之束 長大脫功利之俗 戒違天之悖德 黜害仁之殘賊 筆
巖書院刊 河西全集 上 56쪽 孝賦次梁兄彥鎮韻

15) 宗廟社稷之存全 一家一身之保守 苟斯道之有違 餘誰足以繼取 筆巖書院刊 河西全集 上 68쪽 附原韻

16) 世人重浮名 以之爲正鵠 得之以爲榮 不中便爲辱 汙澆利間奔馳多 局足筆巖書院刊 河西全集 上 168쪽 得瀟灑山人梁彥鎮韻 詩

17) 傷本而枝亡 筆巖書院刊 河西全集 上 55쪽 孝賦次梁兄彥鎮韻

단순한 저항의 차원을 넘어서 큰 실전을 보여준 것이고, 진리를 따르는 길이었던 것이다.

VI 맺음말

오늘날 사람들은 서구 근대에 생겨난 개인주의적 사고를 바탕으로 하여 살아간다. 서구 개인주의적 사고 방식에서 추구하는 삶의 방식은 욕심을 채우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욕심을 채우는 방식은 남과의 경쟁에서 이기는 데서 찾아진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인의 삶은 경쟁이고 현대인은 경쟁에서 이기는 방법을 터득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

경쟁에서 이기는 방법은 여러 가지 일 중에서도 한 가지 일만 하는 것이다. 이른바 프로가 되는 것이다. 정치인은 정치 방법만 공부하고, 경영인은 경영 방법만 공부하게 되며, 교육인은 교육방법만 공부하게 된다. 이른바 전공이란 개념이 생겨난 것이다. 사람들은 각자의 전공을 선택하여 그것에만 주력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사람이 되는 종합적인 학문은 전공이 아니라는 이유로 기피한다. 그러한 결과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은 인간이 되는 길을 포기하고 말았다. 그리하여 극단적으로 말하면 오늘날은 사람이 아닌 것이 정치를 하고, 사람이 아닌 것이 교육을 하며, 사람이 아닌 것이 경영을 하는 시대가 된 것이다. 그 폐해는 이미 예측이 되고도 남음이 있다. 오늘날은 그 폐해가 표면으로 나타나고

있다. 인류 문화는 이제 막다른 길로 접어들고 있다.

사람들은 욕심을 채우느라 정신이 없다. 욕심은 남과 나를 갈라놓는다. 남이 성공하면 배가 아프다. 남의 불행을 보는 것이 행복한 것처럼 되어 버린다. 이러한 마음 상태로 정치를 하면 남을 위한 정치가 나올 수 없고, 이러한 마음으로 경영을 하면 남을 위한 경영이 나올 수 없으며, 이러한 마음으로 교육을 하면 남을 위한 교육이 나올 수 없다. 그래서 오늘날은 점점 아비규환의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다. 오늘날 지구상의 사람들은 다 함께 지옥으로 달려가는 열차를 타고 있는 듯하다. 부모형제가 다투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끔찍한 범죄가 연일 일어난다. 국가간의 분쟁이 끝날 날이 없으며, 자연은 점점 파괴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된 근본 원인은 사람들의 삶이 욕심 채우기로 달려가는 데서 비롯되었다. 그리고 사람 되는 노력을 게을리한 데서 비롯되었다.

이제 근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 꽃을 피우기 위해 뿌리가꾸기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그리하여 프로 정치인이 없어야 하고, 프로 경영인이 없어야 하며, 프로 교육인이 없어야 하며, 프로 예술인이 없어야 한다. 이른바 공자가 말한 군자는 그릇처럼 되지 않아야 한다는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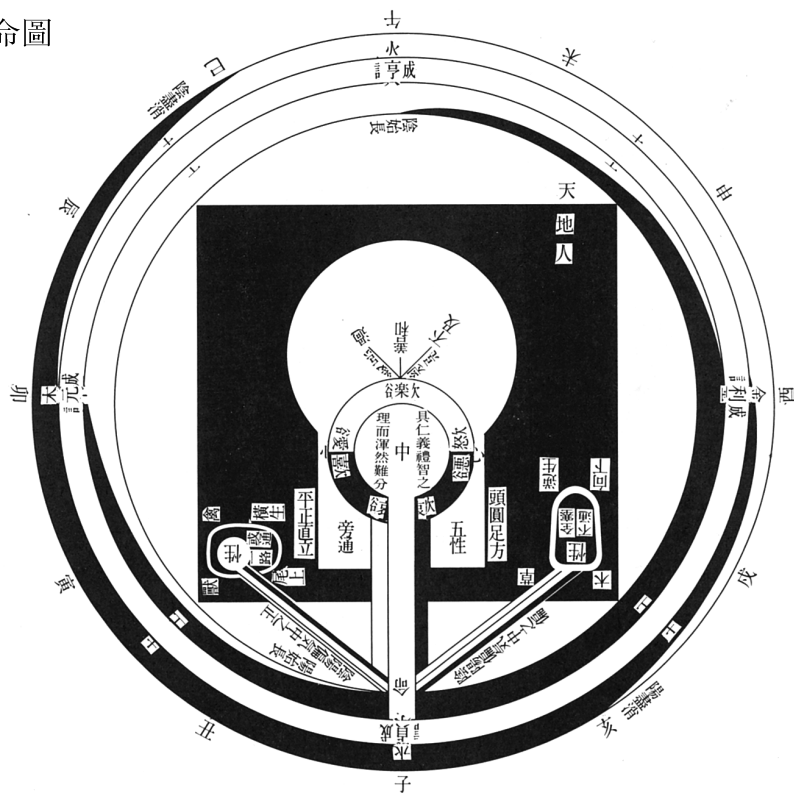
우리는 이러한 정신을 하서에게서 배울 수 있다. 현대인은 심사숙고할 때가 되었다.

18) 斷纖私之來鑠 倘徒文而無本 是孔聖禮云樂云 矧嬰情於青紫 惟望幸於浮雲(筆巖書院 刊 河西全集 上 55쪽
孝賦次梁兄彥鎮韻)

天命圖 비교 연구 : 秋巒, 河西, 退溪

劉權 鍾(중앙대 철학과 교수)

河西 天命圖



인형(人形)

하서(河西)

하서는 천형에서는 추만의 도상을 거의 수정 없이 수용하였지만, 인형(人形)에서는 뚜

렷한 변형을 가하였다. 추만의 심(心)의 미발(未發)과 이발(已發)에 대한 구분, 미발 상태의 심권(心圈)을 이권(理圈)과 기권(氣圈)으로 표현하는 점, 기권을 흑백으로 분리하고 그 안에 칠정(七情)을 배열한 것은 「추만천명도」와 「하서천명도」가 똑같다. 그러나 성(性)에

관해서는 중요한 변화가 있다. 즉 추만은 성(性)을 인(仁), 의(義), 예(禮), 지(智) 사덕(四德) 그리고 신(信)을 사방에 배열했으나, 하서는 심권(心圈)안에 “인의예지(仁義禮智)의 이(理)를 갖추었으나 혼연(渾然)하여 나누기 어렵다.” 고 양 옆로 작은 글씨로 쓰고, 그 가운데에 커다랗게 중자(中字)를 썼다.

이 중(中)은 『중용(中庸)』에서 희노애락(喜怒哀樂)이 미발(未發)한 상태를 일컫는데, 성(性)의 세목보다는 혼연한 전체(全體)에 더 주목하는 하서의 태도가 보인다. 그리고 심(心)의 이발(已發)의 상태에 대한 표시에서 추만과 다른 점은 심권의 위에 중앙으로 곧게 올라간 직선을 긋고 그것을 선(善)으로 표시하고 그 위에 화자(和字)를 거꾸로 썼으며, 그 양쪽에 사선을 곧게 그어서 한쪽에는 과(過) 다른 한쪽에는 불급(不及)이라고 쓰고 악자(惡字)를 파자하여 사선에 붙여 쓴 점이다. 이는 하서가 『중용(中庸)』의 중화(中和)의 원리를 강조한 것을 시사한 것이며, 동시에 조치도(趙致道)의 성기도(誠繼圖)의 모양에서 중요한 시사를 받은 것으로 추측되는 점이다. 즉 그는 의(意)와 존양(存養), 성찰(省察), 경(敬)등의 원리를 표상하지 않고, 단지 심이 발(發)할 때에 기미(幾微)가 선악(善惡)으로 나뉜다는 점과 그 기미를 따라가면 화(和)와 과불급(過不及)의 상태로 나뉘어져 선(善)과 악(惡)이 갈린다는 점만을 시사하였다.

하서의 도상은 매우 간결한 점이 특징이다. 도상의 간결함은 도리어 풍부한 상징성을 함축한다. 간결하면서도 상징성이 풍부한 것은 심권(心圈)의 미발 심체(未發 心體)를 의미하는 중(中)도 그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천인합일(天人合一)의 이상을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방법이라는 점에서 본다면 이발(已發)에 관한 표상의 변화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그가 천명도의 작성과 관련하여 남긴 매우 간결한 제문(題文)은 그 점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하늘의 명이여 그윽하여 그침이 없고, 날고 날는 이치는 일찍이 그친 적이 없다. 올라타는 기틀은 음과 양이라 하는데, 한 번 움직이고 한 번 멈추면서 서로 그 뿌리가 되니 만물이 함께 자라나고 서로 유통하게 되지만, 단지 형기(形氣)의 사사로움에 얽매어서 그것을 알지 못한다. 다만 천하에서 총명하고 지혜로우며 지극히 성실하고 깨끗하여서 제 본성을 모두 발휘하는 사람이라야 능히 그 기미를 살필 수 있는 것이다. 이 그림의 작성은 어찌 평범하게 살피는 사람이 본뜰 수 있는 것이라?”(밀줄 논자)

위 인용문의 밀줄친 부분에서 그 기미를 살핀다고 하는 것이 바로 천인합일로 가는 계기로 강조된 것이다. 「하서천명도」에서 심권의 위에 세 갈래로 나뉜 직선이 그 기미의 상징인데, 정(正)은 화(和)이자 선(善)이며, 양쪽 편(偏)은 과불급(過不及)이자 악(惡)이라는 상징으로 읽힌다. 그리고 추만은 비록 그 기미를 「天命圖解」에서 언급하였더라도 그림에서는 명확하게 문자로 표상하지는 않았다. 반면에 하서는 그 기미의 갈림을 분명하게 하고 거기에 기자(幾字)를 파자하여 함께 표현한 점에서 추만의 애매한 표현을 극복하고자 한 것으로 판단된다.

공통적인 것은 추만이 사단(四端)을 별도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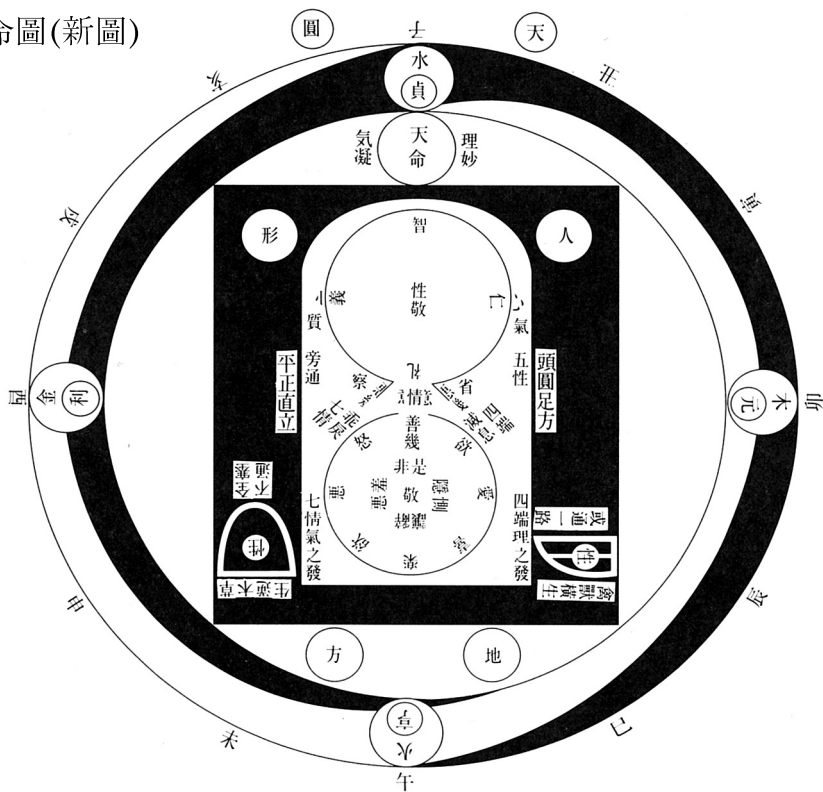
정으로 취급하지 않은 것처럼 해서 역시 사단을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화(和)와 과불급(過不及)을 이발(已發)의 상태로 표상한 것은 「중용」에서 언급된 희노애락(喜怒哀樂)의 정(情)을 심정(心情)의 전체로 간주한 원리를 따른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 때는 아직 사칠론변(四七論辯)이 시작되지 않은 때이지만, 양촌(陽村)이 사단과 칠정을 구분하여 정(情)의 근권을 이원적으로 생각하였던 것과 달리 추만과 하서는 성(性)과 기질(氣質)이 공존하는 심권(心圈)으로부터 발출하는 정(情)을 칠정의 일원적 범주로 생각한 것이다. 다만 그 일원적 범주에 속하는 정(情)의 표상이

추만은 칠정의 선악으로 나누어 표현하였지만, 하서는 간결하게 『중용』 중화(中和)의 원리를 강조한 점이 다르다.

퇴계(退溪)

형태로 볼 때 퇴계의 천명도는 적어도 세 가지 형태가 있으며 각각 다르다. 그러나 대체로 인형에서는 공통된 특징을 지닌다. 이들을 모두 세세하게 열거할 수는 없기 때문에 「퇴계천명도」, 「천명구도」, 「천명신도」의 도상적 표현의 공동점을 중심으로 추만, 하서의

退溪 天命圖(新圖)



천명도와의 차이점을 분석한다.

먼저 심(心)의 미발(未發)과 이발(已發)의 방향이 바뀌었다. 이는 천형에서 살핀 천명의 방향이 추만의 그것과 역전된 것과 연관된다. 그런데 「퇴계 천명도」와 「천명구도」는 천명과 이권과 기권이 연결된 형태의 도상을 취하였지만, 「천명신도」는 상호 연결이 끊어진 폐쇄적 원의 형태를 취하는 점이 중요한 변화이다. 「천명신도」는 심권에서 이권과 기권의 구별도 없애버렸다.

두 번째는 심권의 형태이다. 추만과 하서가 표상한 심권과는 달리 아령 형태로 된 것이 중요한 차이이다. 물론 퇴계는 심권을 미발의 상태에 한정시켜서 생각하는 것은 분명하다. 그는 정(情)을 심권(心圈)의 바깥에 놓은 것으로 설명하기 때문이다. 즉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심권(心圈)이 미발지전(未發之前)을 의미하는 것은 추만, 하서와 다르지 않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더라도 퇴계의 천명도에서 보듯이 미발과 이발의 상태를 하나의 폐쇄적 고리 속에 넣은 것은 대단히 중요한 변화이다. 이는 정(情)이 발출하면 일단 미발(未發)의 심권(心圈)을 벗어나지만, 이발된 정 역시 심의 범주를 벗어나는 것은 아님을 시사한다.

이는 심(心)의 체용(體用)을 하나의 범주로 묶기 위한 도상적 표현 방식으로 추측된다. 우리는 이 그림으로부터 체용의 상호 순환과 상승 효과를 퇴계가 생각했음도 추론할 수 있다. 퇴계 역시 추만과 똑같이 심(心)을 체(體)와 용(用)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그림으로 본다면, 추만은 이 체용의 사이에 경계선을 두어서 절연된 세계처럼 표현

하지만, 퇴계는 체와 용을 하나의 범주 안에 담았다. 심의 체(體)를 보전하기 위한 존양(存養), 심의 용(用)을 바르게 하기 위한 성찰, 그 존양과 성찰을 일관하는 원리로서 경(敬)에 대해서 퇴계 역시 그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의 일련의 천명도에서 경(敬)은 빠짐없이 강조되었다. 그렇다면 아령 모양의 심의 도상은 경(敬)에 의하여 체용을 일관하는 마음의 이상적 운용 방법에 관한 표상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미발과 이발을 이어주는 통로 바깥 좌우에 사선처럼 옆으로 빗겨 파자(破字) 형태로 표현된 악기(惡幾), 사단멸식(四端滅息), 칠정괴반(七情乖反, 「천명신도」), 사단멸식(四端滅息, 칠정혼폐(七情昏蔽, 「천명구도」 등의 문자는 그러한 이상적 심(心)의 체용(體用)에서 벗어난 것임을 시사한다.

세 번째는 심권(心圈)에서 정(情)의 표현을 하지 않은 점이다. 이는 추만과 하서가 미발 일 때의 심권(心圈)에서 기권(氣圈)에 칠정(七情)을 배열한 것과 다르다. 퇴계는 “정(情)은 기권(氣圈)에 두어서는 아니 된다”는 일재(一齋), (李恒 1499~1576)의 견해를 수용했다. 즉 퇴계는 정(情)은 이발(已發)의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에 심권(心圈)에 소속될 수 없다고 생각한 것이다. 따라서 심권(心圈)에는 성(性)만이 표상된 것이다.

네 번째는 심권(心圈)의 기권(氣圈)의 표상이다. 「퇴계천명도」와 「천명구도」가 서로 유사하고 「천명신도」는 그와 다르다. 전자는 심권 속에 성(性)권의 바깥에 기권을 흑백이 섞이도록 표상하고 그 양쪽에 작은 흰색 원을 그리고 그 속에 기(氣)와 질(質)이라고 표기하였다. 그러나 「천명신도」는 심권을 단선으로

표현하고 심자(心字)를 파자(破字)하고 그 아래에 기(氣)와 질(質)을 각각 표기하였다.

다섯 번째는 정(情)을 이원화하여서 사단(四端)과 칠정(七情)으로 구분한 점이다. 퇴계는 사단이란 정을 칠정과 다른 종류의 정으로 간주 했다. 원래 태극도(太極圖)의 구도에 맞추어 『중용(中庸)』의 대지(大旨)를 설명하는 것이 천명도(天命圖)라고 생각했던 퇴계가 『중용(中庸)』에서 언급되지 않은 사단(四端)을 천명도 안으로 끌어들이고, 그 사단의 정을 선한 정(善)의 본연으로 삼고자 표상한 것이 주목된다. 퇴계는 천명도에 사단을 도입하면서 그것과 칠정의 관계, 그 발출 원리의 차이에 대한 표상에 관하여 많이 연구하였던 듯하다. 그림의 수도 복수이고 또 그안에 표상된 문자와 도형도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자세한 고찰이 필요하지만, 이미 사단칠정 논변에 대한 연구들에서 많이 연구된 것이고, 또 본고의 지면의 한계 때문에 생략한다.

여섯 번째로 이(理)로 일관하는 마음의 체용을 강조하는 방식이 일종의 순환 구조로 제시된 점이다. 추만과 하서는 이(理)로 일관하는 마음을 중시하였다. 그러나 추만은 이(理)에 입각한 체용(體用)보다는 이체기용(理體氣用)의 사고를 보였다. 하서가 이를 수용했는가는 천명도상에서는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퇴계의 천명도에서는 이체(理體) 이용(理用)의 사고가 시사된다. 특히 사단은 이발(理發)에 의한 것임을 강조한 것은 이(理)의 체용(體用)이라는 것이 그의 관점임을 암시한다.

일곱 번째 퇴계는 추만이 강조한 정(情)과 의(意)의 관계, 하서가 간결하게 표상한 『중용

(中庸)』의 중화(中和)의 원리와 기미(幾微)의 강조를 종합하여 그의 천명도상에 수용하였다. 하지만 그 도상의 배열과 의미부여는 더 복잡하고 세목화되었다.

맺음말

천명도의 도상과 설명에 관하여 살펴본 결과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발견되었다. 먼저 천명도 전반에 작용한 작도의 원리에 관해서 보면, 추만과 하서는 『역(易)』의 이치에 따라서 천명을 아래로부터 위로 올라가는 형태로 그린 반면, 퇴계는 태극도의 원리에 따라서 천명이 위로부터 내려오는 형태로 그렸다. 또 천명의 시점과 그 원리에 관해서, 추만과 하서는 천명을 선천(先天)의 단계에서 근원하는 것으로 보았다면, 퇴계는 후천(後天)의 단계에서 천명이 근원하는 것으로 본 점이 다르다. 그리고 천명의 시점(始點)을 추만과 하서는 수왕(水旺)의 시점(時點)에서 구하는 반면에 퇴계는 음양과 오행이 두루 유행하는 단계로 보는 점이 다르다.

인형(人形)의 심권(心圈)에 관한 견해도 많은 차이가 있다. 우선 현존하는 천명도로만 볼 때에 추만과 하서가 심권 속의 기권에 정을 포함시킨 반면에 퇴계는 정을 포함시킬 수 없다고 보았다. 또 추만은 이발(已發)된 정(情)을 칠정의 한 범주로만 표시한 반면에 퇴계는 사단과 칠정의 두 범주로 표현했다. 훗날 고봉(高峰)이 퇴계의 천명도에 언급된 사단과 칠정의 설명에 대한 반론으로 시작된 사단칠정론변(四端七情論

辯) 양자의 관점도 근본적으로는 이와 관련된 것이 아닐 수 없다. 이는 사단칠정논변 이전에 이미 기호(畿湖)지역의 학자들 일부에서는 인간의 심성정(心性情)에 대한 이해가 인간의 성으로부터 칠정이라는 범주 하나로 발출한다고 생각하는 일원적 사고가 정립되어 있었고, 영남(嶺南)의 퇴계에게서는 인간의 성과 정의 관계를 이원적으로 갈라서 생각하는 방식이 정립되어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증거가 되는 셈이다. 앞의 고찰에 따르면 추만과 하서가 『중용』의 원리에만 의존하여서 성정의 관계를 일원적 구조로 설명하였지만, 퇴계는 맹자의 사단(四端)이라는 관념을 넣어서 성과 정을 이원적 구조로 설명한 점이 가장 직접적인 이유이다.

그러나 천명도의 작성이 추만에게서 시작되어 퇴계에게서 마무리되는 과정과, 추만의 「천명도해」가 퇴계와 함께 정정한 「천명도설」로 귀결되는 과정을 보면, 추만과 퇴계의 견해 차이는 심각한 논쟁으로 발전하지 않았고, 대체로 퇴계의 견해가 반영되어 수정된 내용이 두 학자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퇴계는 추만이 일찍 타계한 점에 대해서 많은 아쉬움을 토로하였지만, 두 학자 사이에는 어느 정도 견해 차이가 조정되고 조화되었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하서와 퇴계의 견해 차이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정되거나 조화되었다고 하는 증거를 찾기 어렵다. 이 역시 하서의 퇴계보다 이른 타계 때문에 그 작업 자체가 불가능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심정의 미발과 이발, 칠정과 사단의

관계 등을 둘러싼 사단칠정 논변에서 고봉(高峰)이 퇴계에게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이론적 단초는 하서의 천명도 혹은 추만의 천명도로부터 취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고봉의 관점과 논리의 근본적인 틀은 추만과 하서의 공통된 견해와 그 기조가 유사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본다면, 하서의 동의를 얻은 추만의 견해, 즉 정(情)을 칠정(七情)이라는 하나의 범주로 보는 견해는 비록 뒤에 퇴계의 견해와 융합되어 그 본래의 관점을 잃었지만, 이후 고봉의 사단칠정 논변의 과정에서 다시 부활하고, 율곡에 의해서 기호학파의 정(情) 관념으로 정착되었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퇴계는 추만의 일원적 정 관념을 개정하여 이원화하는 것에 성공함으로써 그의 사단칠정논변의 이론적 틀을 확고하게 하였다고 판단 된다. 그러한 점에서 일련의 천명도는 비록 퇴계의 천명도에서 그 대체적인 역사가 종료된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성리학의 역사에서는 논변에 의한 학문 발전의 중요한 단초를 제공한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는 것이다. 즉 성리학 관념의 도상적 표상은 관념의 표상이며, 관념의 표상이 구체적으로 형상화되면서 나타나는 차이는 곧 성리학 이해의 차이를 드러내는 것이며 그로 인해서 성리학 연구를 심화하는 논변이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그러한 점에서 이 세 학자들의 천명도는 성리학 발전에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판단된다.

박석무 이사장 하계 학술강연 성료

‘청백리 사암(思庵) 박순(朴淳)의
생애와 사상’을 주제로

본회는 지난 6월 25일 필암서원 집성관(청림 문화센터)에서 본회 회원과 광주향교 유림, 송준빈 남간사 도유사, 정운염 전북유림 원로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4년 하계 학술강연회를 개최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강사로 초청된 다산연구소 박석무(朴錫武) 이사장은 청백리 사암(思庵) 박순(朴淳)의 생애와 사상이란 주제로 강연하여 청중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사암 박순 선생은 1523년 나주에서 놀재 박상의 아우 육봉 박우의 아들로 태어나 화담 서경덕에게 수학하였다. 뛰어난 시인이요 학자이며 탁월한 정치가로 모두에게서 칭송을 받았던 인물이다. 대사간에 오르자 대사헌 이탁(李鐸)과 함께 윤원형을 탄핵하는 상소를 올려 권신 윤원형과 이양을 쫓아내고, 정승 심통원(沈通源)까지 퇴출시키자 선비들의 사기가 앙양되기 시작하여 목릉성세를 열었다. 이는 하서 선생이 목숨을 걸고 중종(中宗)에게 처음으로 조광조(趙光祖)를 비롯한 기묘명현(己卯名賢)들의 신원을 상소하여 인종(仁宗)이 즉위하자 실현되었는데, 사암 박순이 윤원형과 이양을 척결함으로써 이를 완결시켰다고 할 수 있다.

선조(宣祖)는 박순을 지극히 신임하여 ‘송균절조 수월정신(松筠節操 水月精神)’, 소나무나 대나무의 곧은 절조에 맑은 물이나 밝은 달과 같은 깨끗한 정신의 소유자라고 극찬하였다.

청음 김상헌은 사암집 서문에서 사암의 가계

가 훌륭하고 화담 서경덕 문하에서 성리학을 공부해 높은 수준에 달했으며 왕권을 농락한 간흉들을 쫓아냈고, 이율곡 성우계 등 당대 학자들이 가장 존송했던 당세 제일의 인물이라고 평했다.

중국 사신들은 “송나라 인물에 당나라 시풍(詩風)을 지닌 인물”이라 했으니 국제적인 인물이라고 평했다.

박석무 이사장은 40년에 가까운 벼슬살이에 14년간 정승 생활을 했으면서도 부를 쌓지 않고 녹봉을 가난한 친척이나 친구들에게 나누어 주고 별로 가진 것 없어 청렴결백하기가 그만한 인물이 없다고 청음 김상헌이 평가한 점을 특히 강조하였다.

국가의 안위만을 염려해 바른 말과 곧은 마음으로 임금을 섬겨 시비 선악에 것처럼 명쾌한 정승이 없었다고 했다. 상소가 시행되지 못함을 알자 정승을 헌신작처럼 버리고 계곡에 숨은 사암의 염퇴(恬退)가 세상에 어디 있느냐고 찬양했다. 청음 김상헌은 박순 선생을 “하늘과 땅 사이의 기운이고 국가의 보배이며 사림(士林)의 종장(宗匠)”이라고 총평했다. (강연문은 산양회보 23집에 있으니, 참조 바랍니다)

9월 13일 필암서원에서**하서 김인후선생 추향제 봉행**

초헌관 서정기 성균관장

‘유교와 현대 민주주의’로 강연

지난 9월 13일(음력 8월 20일) 정해(丁亥)에 필암서원에서 하서 김인후 선생을 추모하는 추향제가 봉행되었다. 초헌관으로 추대된 훈로 서정기 성균관장님을 비롯한 제관들과 유림, 그리고 김인

수문정공도유사는 전날 밤에 청절당에서 강회를 열고 도학에 대한담론을 나누며 교분을 가졌다.

오전 10시 30분부터 시작된 추향제에는 서정기성균관장, 박병호필암서원 원장, 장원석광주향교전교, 송준빈남간사 도유사, 오문복제주향교 원로와 유림, 유두석 장성군수와 군민, 김달수울산김씨 대종회장, 김인수도유사와 본손 등 200여명이 참여하였다.

초헌관에는 서정기성균관장, 아헌관에는 박광호 창평향교원로, 종헌관에는 정양원 한국한시학회 상임이사, 집례에는 최성종 성균관 전례위원장, 대축에는 김재룡 한국서광연합회 총무님이 수고하였다.

제사를 마친 후 서정기성균관장은 청절당에서 ‘유교와 민주주의’를 주제로 강론했다. 서정기 관장은 “독일의 칸트, 헤겔, 라이프니츠와 프랑스의 몽테스키외, 루소, 볼테르 등 서구 사상계의 선구자들이 15~16세기 유럽에 소개된 공자의 대도를 연구하고 계몽사상의 근본으로 삼았다”고 말했다. (강론원고는 본회 회보 24호 게재했음)

9월 13일 필암서원에서, 하서선생유적지 탐방 체험학습, 글짓기 대회 시상식 금상-김민주(진원초5)은상-박은서(사창초5)

장성의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이 필암서원, 봉암서원, 청백리 박수량의 백비, 하서선생의 생가와 묘소, 축령산 등 우리고장 장성의 문화유적지와 하서 김인후와 관련된 광주박물관, 중외공원 하서동상, 순창의 훈몽재, 담양의 소쇄원을 탐방하고 체험 글쓰기를 한 후 이를 심사하여 추

향제 지낸 후에 시상식을 거행하였다. 진원초교 5년 김민주양이 금상을 받아 상금을, 사창초교 5년 박은서양이 은상에 상금을, 북일초교 5년 탁지예양이 동상에 상금을 받았다. 금상을 받은 김민주양은 ‘장성을 드높이신 문정공 하서 김인후 선생님’이라는 글을 하서선생께 낭독해 올렸다.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국제학술회의

‘장성 필암서원’ 등 한국의 대표적 9개서원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하기 위해 10월 24일 서울 프레젠테 국제회의장에서 ‘국외 교육유산의 이해와 한국 서원과의 비교’라는 주제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학술회의는 문화재청이 주최하고 (사)한국서원연합회.(이사장 여약), 한국의 서원세계유산 등재추진단(단장 이배용 한국학 중앙연구원장) 주관으로 추진되었다.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등재 추진단에서는 서원의 가치를 전 세계에 널리 알림으로써 대한민국의 품격을 높이는 기회로 삼고자 문화재청, 지방자치단체, 서원운영자, 학계 전문가 등과 함께 서원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국제학술회의에서는 김광익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의 ‘전통 교육기관의 문화유산적 가치:콜레기움과 서원을 중심으로’라는 기조 강연을 시작으로 국내외 연사들이 강연하였으며, 마지막으로 ‘한국 서원의 세계유산적 가치’를 주제로 이 상해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가 발표하여 마무

리짓고, 이와 관련한 종합토론이 진행되었다.

특히 장성 필암서원(국가 사적제242호)은 조선시대에 평지에 세워진 서원 건축의 대표적 사례다. 필암서원은 동국18현인이며 도학자 하서 김인후(1510~1560)를 제향하는 역사성뿐만 아니라 조선 후기 서원 철폐시에도 존치돼 조선시대 서원의 전형을 유지하고 있는 중요한 유적이며 문서와 전적, 목판(보물 제587호)등 조선시대 서원 운영과 선비 교육에 관한 기록 자료도 전해오고 있어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크다.

필암서원에서 학술문헌 연구와 관련자료 정리 등을 거쳐 등재신청서와 보존관리계획서 등을 9개서원이 공동 작성해 2015년 1월에 유네스코에 등재를 신청할 계획이다.

장성 필암서원과 중국 악록서원 간 상호 교류 기틀 마련

2013년 10월 23일 장성 필암서원과 중국 악록서원 간 교류협력을 위한 협의서 체결을 중국 호남성 장사시 호남대학 악록서원 회의실에서 한 후 중화전국청년대표단 임보양(任普陽)단장 인솔하에 150단원이 2014. 5. 11부터 12일까지 필암서원을 방문하였다. 알묘, 유물전시관, 집성관등을 관람하고 봉심하였다. 우리 필암서원에서도 9월 28일에 중국 악록서원에서 봉행하는 공자 탄신일 제향에 참석했다.

필암서원에서는 유두석 장성군수, 필암서원 도유사 김인수 등 13명으로 구성된 방문단이 9월 25일부터 29일까지 4박 5일 일정으로 중국 저장성 이우시와 호남성 악록서원을 방문하며

국제교류 시효를 마련하였다.

이번 이우시 방문에서는 학생 상호 교류를 위해 양연옥 장성교육장도 함께 방문해 중국 이우시 교육 관계자와의 실무 협의를 통해 교류의향서를 체결했다.

이어 방문단은 27일 악록서원 방문하여 차오위에위(趙耀宇) 중국호남대학 총장을 만나 교류협력 사안을 논의했으며 공자 탄신일(9.28)에 봉행하는 제향에 참석하였다.

호남대 측은 ‘유봉(有朋)이 자원방래(自遠方來)하니 불역열호(不亦說乎)라’ (벗이 있어 멀리서 찾아오니 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는 고사성어를 인용하며 방문단을 극진히 환영했으며 이에 유두석 군수는 “세 뉘 주고 집을 사고 천 양 주고 이웃을 사며 좋은 이웃은 돈으로도 바꿀 수 없다”며 호남대와 이웃이 된 기쁨을 표현했다.

이번 방문으로 필암서원과 악록서원의 우호관계가 실사구시 정신에 입각해 활발한 교류를 추진하여 상호간 발전을 이뤄나가기를 기대한다.

김한, 민영화된 광주은행의 첫 행장에 취임 전 고려대 김상협 총장의 아들로 해서 선생의 15대손

김한 JB금융지주회장이, 11월 26일 광주은행 본점에서 민영화된 광주은행의 첫 행장에 취임했다.

김한행장은 취임사에서 “광주은행을 30년 후에도 살아남는 은행의 모델로 만들겠다. 내가 광주은행장으로 온 것은 두 은행 통합과정에서 최대한 시너지를 이끌어낼 수 있는 최고의 적임자이기 때문” 이라고 말했다.

김한 행장은 인터뷰에서 “개인적으로 해서 김

인후선생의 집안이라 장성이 원래 고향이다. 할아버지 때부터 고창에 자리를 잡게 되면서 전남 북에 모두 연고가 생겼다. 그 동안 호남지역민들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고 성장했는데, 앞으로 광주전남전북이 더욱 잘 사는 고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한 행장은 삼양그룹 창업자 수당(秀堂) 김연수(金季洙)씨의 손자이자 고려대학교 총장을 지낸 김상협 전 국무총리의 아들로, 하서 김인후 선생의 15대손이다.

다양한 경력을 국내외에서 쌓은 후 2010년 전북은행장에 부임한 후 7조원이던 은행 자산을 4년만에 40조원으로 불리는 등 탁월한 경영능력을 발휘해와 앞으로 크게 기대된다.

2014년도 정기총회 준비를 위한 본회 이사회 광주에 하서학당 개설 등 새로운 사업 추진하기로

2014년도 정기총회를 준비하기 위한 본회 이사회가 10월 31일 17시에 예원식당에서 열렸다. 정환담 이사장의 인사말을 들은 후 이충원 이사로부터 2014년 경과보고를 듣고 여러 안건을 논의하였다.

2014년 정기총회는 12월 17일(수)~19일(금) 사이에 광주향교 유림회관에서 개최하기로 결의하고, 그에 따른 일을 준비하기로 했다.

이날 초청강사로는 ‘하서선생의 복성부(復性賦)에 대하여’란 주제로 성균관대학교 이기동교수에게 청탁하기로 했다.

2014년도 결산서를 준비하고 주소록과 발송록을 점검하기로 했다. 2015년도 사업계획안으로 새로운 사업을 깊이 논의하여 실행할 필요성

이 있다고 제기되어, 체험 글쓰기를 중학생으로 확대하는 방안, 하서와 이야기하다, 광주에 하서학당을 개설하는 문제 등이 논의되었는데, 이의 실행을 위해 본회 기금에서 500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의하고, 정환담, 김인수, 김재수, 김장수이사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본 산양회보 24집에 대한 편집 계획을 논의하여 서정기성균관장님의 추향제 강연 원고, 김정수 전 울산김씨 대종회장 기고 원고, 하서 시문 등을 게재하기로 했다.

훈몽재(訓蒙齋) 여름 강회 성료

하서 김인후선생이 송강 정철, 고암 양자징, 월계 조희문, 영응 이지만, 호암 변성온 등 많은 제자들을 가르쳤던 훈몽재에서는 해마다 여름과 겨울 방학에 전국 여러 대학에서 모여든 학생들이 고당 김충호 산장에게서 유교 경전을 배운다.

지난 7월 26일 훈몽재에서는 황숙주 순창군수, 이기자 군의회의장을 비롯하여 여러 유림들과 학생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하서선생의 도학과 절의 정신을 본받기 위한 네 번째 강회가 열렸다.

이날 강회에는 고려대, 단국대, 전주대, 원광대, 안동대, 상지대에서 온 50여명의 유학교육반 학생들이 참석해 경화 임용순선생을 비롯한 유학 원로들 앞에서 한 달 동안 수확한 학업진취도 시험과 유교경전을 암송하는 윤강시험이 있었다.

순창군의 적극적인 지원과 고당 김충호산장의 헌신적인 노고로 유서 깊은 훈몽재가 호남 유학교육의 산실로 자리잡아 가고 있으니 기쁜 일이 아닐 수 없다.

“한국학호남진흥원 어디에 어떻게 설립할 것인가?”

학술토론회, 정환담 김재수, 김장수 본회이사 참석

광주대학교 호남전통문화연구소가 주관한 ‘재단법인 한국학호남진흥원, 어디에 어떻게 설립할 것인가?’ 학술토론회가 11월 14일 14시 광주대 호심도서관에서 열렸는데, 본회 정환담 이사장, 김재수 김장수이사가 참석하였다. 호남진흥원 설립이 무르익어가는 절호의 시기에 순천대 이육교수가 “한국학호남진흥원, 어디에 어떻게 설립할 것인가”를, 한국학호남진흥원 서정현연구원이 “재단법인 한국학호남진흥원 설립 로드맵 검토”를, 한국전통문화대 최영성교수가 “전북에서 생각하는 한국학호남진흥원의 모습”을 발표한 후 목포대 고석규교수 사회로 토론이 진행되었는데, 서로 발언권을 얻으려 할 만큼 열띤 토론이 있었다.

이육교수는 상징성 관점에서 보면 호남에서 유일하게 문묘에 배향된 하서 김인후선생을 모신 필암서원과 노사 기정진을 모신 고산서원이 있으며 백양총림 사찰이 있는데다 전북과 지리적 인 접근성 면에서 장성이 적지라고 발표하였다. 한편 나주시에서는 담당직원과 나주향교전교 등 몇 사람을 파견하여 적극 유치할 뜻을 표명했다.

본회 김장수 이사 ‘국역 十八현 신도비문’ (十八賢 神道碑文) 발간

본회 이사이며 동양문헌학회부회장인 신계 김장수씨가 문묘에 배향된 동국18현의 신도비

문을 국역하여 책으로 발간하였다. 역자는 자서(自序)에서 “유림이라면 죽을 때까지 절문이근사(切問而近思)의 탐구 정신을 통하여 성의정심(誠意正心)에 힘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교의 혜택은 세대 간 존현상덕(尊賢尙德)이 이어질 때 가능하다고 여겨 우리는 선현들의 위인지학(爲人之學)을 본받고 실천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기에 문묘에 배향된 심팔현의 행적을 학습하는데 편의를 도모하고자 ‘국역 동국심팔현 신도비문’을 출간합니다.”라는 뜻을 밝혔다.

본회 박래호(朴來鎬) 총무

성균관 30대 부관장 선임

본회 박래호 총무는 지난 7월 1일 성균관 30대 부관장에 선임되어 축하를 받았다. 박총무는 지난 5월 14일에 창평향교에서 특강을 하였고, 5월 31일에는 성균관에서 특강을 하였다. 또한 4월 26일에는 패성시사(浦城詩社) 전국 한시 백일장, 11월 1일에 대전 남간사(南澗祠) 전국 한시 백일장의 시관을 맡았다.

유도회 김해 대동지회,

무장향교 대상지회 - 필암서원 봉심

10월 27일에 성균관 유도회 김해시 대동지회(大東支會) 김태선 지회장, 강상구 총무, 박신길 원로 등 38명이 필암서원 우동사를 봉심하였다.

11월 13일에는 성균관 유도회 무장향교 대상 유도회 한상옥회장, 김용신 총무외 39명이 필암서원 우동사를 봉심하였다.

2014年 9.13

筆巖書院 秋享祭 獻誠金

금액	성명	주소
3,000,000	학술회	필암서원 학술회
1,000,000	김영수	태양전자 회장
500,000	산양회	필암서원 산양회
500,000	김인수	울산김씨 문정공 도유사
200,000	서정기	성균관 관장, 초헌관
200,000	김양수	전 장성군수
200,000	김달수	울산김씨 대종회장
100,000	김정수	전 울산김씨 대종회장
100,000	김상현	문정공 부도유사
100,000	김재완	장성군의회 의장
100,000	김관중	장파 도유사
100,000	송준빈	대전 중구 남간사 도유사
100,000	양연옥	장성군 교육장
100,000	송남섭	은진송씨 촌무유사
100,000	정환담	필암서원 산양회 이사장
100,000	김재수	필암서원 산양회 이사
100,000	김종환	문정친목회 회장
100,000	김창수	울산김씨 계파 도유사
50,000	정종연	바르게살기운동 장성군협의회장
50,000	공영갑	장성 남면 마산길46
50,000	김영수	황룡면장
50,000	별유사	송계서원
50,000	공재유	북이면 사산리
50,000	반강진	장성 향교 유도회장
50,000	김정태	성균관 부관장
50,000	최구남	전북 김제군진봉면 석치
50,000	양중호	담양군 수북면 쪽재골길 84
50,000	김승규	광주남구 백운동 현대@103-306
50,000	이재근	대한노인회장성지회장
50,000	김성수	장성군 장성읍신천길 54
50,000	김종운	북구 우산동191-4
50,000	김상권	장성군 장성읍 주공@
50,000	김진오	광주시 북구 운암동 삼호@
50,000	김영일	장성 동화면 태영영농
50,000	김상준	대종회 부회장
30,000	서림사	북이면 만무리

山仰會 헌성금

정채호 이사	10만원
김인수 문정공 도유사	20만원
김승규 간사	20만원
김상돈 문정공부도유사	10만원

2014년 춘향 추모 화환

울산김씨 대종회장 김달수
 광주향교 전교 장원석
 성균관 광주지역 본부장 강대욱
 문정공 도유사 김인수
 광주향교 모성회장 김중채
 대로서원 원장 김동현
 그레이스유통 김동원
 밀등회 회장 김종근
 울산김씨 광지역 종친회장 김병철

금액	성명	주소
30,000	최기정	영암 구림
30,000	이홍주	운암 벽산@301-403
30,000	윤장현	서구 금호동 모아@ 104-306
20,000	김남전	서구 백설길19 회림@102-1103
100,000	김상열	서울 종로구
20,000	김용규	북구 우산동 518-113
50,000	오문복	제주도 서귀포시
50,000	수산사	장성 황룡면
50,000	이재영	장성 산림조합장
50,000	선양웅	동구 지산동 434-57

- 24호 목차 -

하서 시(河西 詩) 두 편 하서 김인후	1
하서 선생이 읽고 깊이 깨달은 시경 증민(詩經 烝民)	2
유교(儒敎)의 전파와 현대 민주주의 서정기 (成均館長)	4
河西의 철학과 復性賦 이기동 (성균관대학교 교수)	9
天命圖 비교 연구 : 秋巒, 河西, 退溪 劉權鍾 (중앙대 철학과 교수)	21
필암서원 · 산양회 소식	27

- 알 림 -

1. 변경된 새 주소와 전화번호를 써 주십시오.

- 앞으로 새 주소록을 만들려고 하니 새로이 시행될 주소와 변경된 전화번호를 방명록에 꼭 적어주십시오

2. 회비 입금 계좌 및 입회 절차 안내

- 회원님들께서는 장성 농협(301-0093-8931-91) (사)필암서원 산양회 계좌로 가입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규 가입을 희망하시는 분은 강연회 또는 춘추향제에 나오시거나 전화로 가입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선 위의 농협 계좌로 입회비 3만원을 입금하시고 전화(010-2705-6395 김재수)로 다음 사항을 알려주십시오.
- ① 성명(한문) ②본관 ③아호(한문) ④생년월일 ⑤주소 ⑥전화번호(자택, 휴대폰) ⑦학력 및 경력, 현직

3. 청 · 장년, 여성 유림의 입회를 적극 환영합니다.

사단법인 필암서원 산양회 이사장

... 筆巖書院 山仰會 活動事項 ...

- 2005. 6. 30일 광주향교 유림회관에서 하계 학술강연. 연세대 송주호 교수가 ‘河西詩의 몇 가지 국면’이라는 주제로 강연.
- 2005. 9. 20일 추향제 올리고, ‘河西 선생의 생애와 사상’이라는 주제로 이준범 고려대 전 총장이 강연함.
- 2005. 12. 8일 산양회 정기총회 및 학술강연, 박종달 회장이 연임되고, ‘河西 선생의 中和思想’이란 주제로 전주대학교 吳鍾逸 교수가 강연함.
- 2006. 3. 20일 춘향제를 올리고, 노강 박래호 총무가 河西 선생의 『復性賦』를 낭독하고 강론.
- 2006. 7. 5일 광주 향교 유림회관에서 하계 학술강연. 서강대 백승종 교수가 ‘조선전기의 사림정치와 하서 김인후’라는 주제로 강연함.
- 2006. 10. 1 추향제를 올리고, ‘政治人이 우리러보는 河西 先生’이라는 주제로 초현관 李重載 상임고문이 강연함.
- 2006. 12. 13 정기총회 및 학술강연 「하서 김인후와 미암 윤희춘」이란 주제로 조선대학교 이종범 교수가 강연함.
- 2007년 4. 3 춘향제 올리고 ‘하서선생이 21세기에 유림에게 던지는 메세지’란 주제로 변은섭 유도회 총본부 회장이 강연했음.
- 2007년 12. 21일 광주향교 유림회관에서 「조선시대 禮學의 발전과 禮治」라는 주제로 광주대학교 고영진 교수가 강연. 산양회보 10호 발간. 吳仁均 신임회장 선출.
- 2008년 3월 18일 춘향제 올리고, 「하서선생과 가사문학」이란 주제로 문경규 전 담양군수 강론.
- 2008년 7월 17일 광주향교 유림회관에서 박준규 박사가 「河西 문학의 道學的 이해」 강연. 산양회보 11호 발행.
- 2008년 9월 20일 추향제 올리고, 柳承國 원장이 「東아시아 사상 基調로서의 道와 河西思想」이라는 주제로 강연.
- 2008년 12월 23일 광주향교에서 정기총회. 김재수 교수가 「河西는 佯狂爲奴論을 왜 썼는가」 강연함. 산양회보 12호 발간.
- 2009년 3월 13일 필암서원에서 春香祭 올리고 安炳周 박사가 「하서 김인후 선생의 학문」을 주제로 강연.
- 2009년 7월 1일 崔山斗 先生의 도학정신(최대우 교수) 강연, 山仰會報 13호 발간.
- 2009년 9월 29일 추향제. 이동준 성균관대 전 유도대학장이 「하서 선생의 학문 세계」 강연.
- 2009년 12월 23일 광주향교에서 정기총회, 이준영 감사 「예기유행편」 강독, 산양회보 14집 발간.
- 2010년 3월 28일 춘향제 올리고 하서 선생 도학과 절의에 대한 강연.(金東炫 울곡사상연구원 이사장)
- 2010년 7월 7일 필암서원 집성관에서 선비정신 확산을 위한 우리의 노력 (김병일 한국국학진흥원장) 하서 선생의 上李太守書에 대하여 (金正洙) 강연, 산양회보 15집 간행
- 2010년 12월 16일 광주 향교에서 정기총회, 선비의 시각으로 파악한 河西 선생 : 오종일(전주대 명예 교수) 강연
- 2011년 3월 23일 춘향제 올리고, 김병일 원장 「선현이 맺어준 아름다운 인연」을 주제로 강연
- 2011년 7월 6일 집성관에서 ‘한국 유학의 현대화를 위한 논점 세 가지’ (전남대 김기현 교수 강연) 회보 17호 발간
- 2011년 9월 9일 추향제 올리고 초현관 심우영(전 총무처 장관, 전 한국국학진흥원장 장관) 강연
- 2011년 12월 20일 광주 향교에서 정기총회, 하서 김인후의 誠敬 사상 : 이애희(강원대 교수) 강연
- 2012년 3월 7일 춘향제, 초현관 최상옥 회장
- 2012년 7월 4일 집성관에서 ‘하서 선생의 시문학에 대한 후인들의 평가’ 박명희 박사(전남대 호남학 연구원)
- 2012년 10월 3일 추향제 올리고, 초현관 박병호 원장 「하서 선생에 대한 사관(史官)의 평가」 강연
- 2012년 12월 27일 광주향교에서 정기총회, 정환담 학장 : 「하서 사상의 현대사적 재조명」 강연
- 2013년 3월 22일, 춘향제 올리고 초현관 이낙연 의원 「河西의 出處는 오늘날 공직자의 귀감」 강연
- 2013년 7월 1일, 집성관에서 ‘동춘당과 우암의 하서 존송’ 김문준 교수 강연(건양대)
- 2013년 9월 30일 추향제 올리고 초현관 이정식(호남대 공자아카데미 원장)이 ‘한중 호남 문화속의 악록서원과 필암서원 교류 의미와 전망’이란 주제로 강론
- 2013년 12월 13일 광주 향교에서 정기총회, 고영진 교수, ‘하서 김인후, 그가 만났던 사람들’ 강연함
- 2014년 3월 17일 춘향제 올리고, 청철당에서 이성무 한국학술원 부원장, ‘하서 김인후의 생애와 사상’ 강연함
- 2014년 6월 25일 집성관에서 ‘청백리 사암 사암(思菴) 박순(朴淳)의 생애와 사상’이란 주제로 다산연구소 박석무 이사장 강연
- 2014년 9월 13일 필암서원 추향제 올리고 초현관 서정기 성균관장 ‘유교와 현대 민주주의’ 강연